

국어영역

2017^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대시/고전시가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기출 수능 역추론

원리와 사고방법

& 실전문제



방법은 있다

표지 안쪽

수능 국어 2017^판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현 대 시 / 고 전 시 가 편

이성호 · 차용택 저

- 현재 학년도 기출수능문제를 싣고 풀이하여 유형을 분석함으로써 학습 방향 제시
- 기출수능에서 역추론한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문항 유형별로 제시
- 수능 주요 기출 문제를 예제로 제시하고 유형모의, 실전 문제 수록
- 수능 1등급을 넘어 만점을 위한, N수생 수준의 신유형 고난도 문제 대폭 수록
- 시의 구조와 주제를 도식화하여 한 눈에 보기로 제시
-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 제시
- 전 EBS 집필자와 공동 제작



방법은 있다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를 거쳐 현재 서초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언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차용택 선생님

서울 언남고, 신림고, 함양고를 거쳐 현재 진주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원리와 방법편〉 〈독해/논리편〉 〈현대시/고전시가편〉 집필(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도서출판 방법은있다 간행)

수능 링크 실전편 집필 (공저, 천재교육 간행)

대한 교과서 실전모의고사 집필 (공저, 대한 교과서 간행)

독서 평설 집필 (공저, 지학사 간행)

블랙박스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 현대시/고전시가편

지은이 | 이성호, 차용택

이 책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 파일은 구매한 개인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 파일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학습 대책 -

주요 작가의 대표작을
가능한 많이 읽어 둔다.
참신한 내용의 읽기 자료집을
선정하여 다양한 글을 읽어 둔다.
글을 치밀하게 읽는 습관을 길러 둔다.

국어 참고서든 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시중 참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구절이다**. 문제의 유형은 여러 가지이지만 학습 대책은 똑 같이 제시되어 있다. 많은 독서는 언어를 공부하려는 학생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을 많이 읽으라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너무도 **당연한 말은 너무도 황당한 말이** 되기 십상이다.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구체적 상황에서 책을 많이 읽어 두라는 말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 뿐인 것이다**.

수능 시험의 출제 원칙은 밝혀져 있다. (학교에서도 교과서 지문을 이용하지만 역시 유형은 수능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휘력을 묻고,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사고 능력, 그리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야 어휘력이 늘고, 어떤 연습을 해야 사실적 사고 능력과 추리 상상적 능력이 향상되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길잡이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있기는 있다. 평소 책을 많이 읽어두라는 공자님 말씀.

학생들 입장에서 ‘이 문제는 나의 사실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낸 문제이구나’라고 아는 것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언어에 관한 문제는 수능 시험이든 학교에서 치르는 중간고사든 그 유형은 유사하다. 특히 암기력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7차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결국 수능식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느 지문이 사용되었든 포괄적 사고 방법을 알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된다. 교실에서, 일등부터 꼴찌까지의 학생들과 수업을 하며, 문제의 정답에 접근하는 **사고 방법을 찾으려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여 책으로 엮어 보았다**.

“학생들에게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을까?” 하는 서로의 고민을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 모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것이 96년 가을이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함께 근무한 1년 반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였고, 근무지가 달라진 1년 동안에는 통신을 주고받으며 자료를 모으고, 각자의 교실에서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지면을 만들어 갔다.

- 초판 머리말의 변형

완전 개정 3판에 붙여

‘98년 초판 이래 ‘원리와 사고 방법’에서 **놀라운 활용력을 보인 ‘방법은 있다’를 새로운 입시 체제에 맞춰 완전 개정 3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제시해 달라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또한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작품의 예를 제시하고** 문학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설을 강화하고 **이해력 높이기 항목**을 제시하느라 한 권으로는 한계가 있어 네 권의 책으로 분절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등의 네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현대시/고전시가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인 ‘방법은있다’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시마다 그림과 도식을 이용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를 넣어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구 자체를 이용해 내재적 관점으로 분석한 시 해석력 높이기**를 두어 **시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법은있다’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두 지은이 이성호, 차용택



차례

제1부 201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2

제2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반어, 역설·모순 형용, 풍자, 표현 기법과 발상 24

유형모의1-1 길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46
시 해석력 높이기•50	
유형모의1-2 꽃을 위한 서시 / 폭포	51
시 해석력 높이기•56	
유형모의1-3 승무 / 국화 옆에서	57
시 해석력 높이기•61	
유형모의1-4 여부가	62
시 해석력 높이기•65	
유형모의1-5 우부가	66
시 해석력 높이기•69	
유형모의1-6 사리화 / 구름이 무심(無心)한 말이 / 냇가의 해오랏마	70
시 해석력 높이기•73	
유형모의1-7 못 잊어 / 오늘도 고향은 / 농무 / 덕들에 동난지이 / 눈 / 벽모의 묘	74
시 해석력 높이기•80	

2. 상징 82

유형모의2-1 아버지의 마음 / 가정(家庭)	95
시 해석력 높이기•100	
유형모의2-2 까치밥 /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101
시 해석력 높이기•105	
유형모의2-3 누룩 / 연탄 한 장	106
시 해석력 높이기•111	
유형모의2-4 규원가(歸元歌)	112
시 해석력 높이기•115	
유형모의2-5 공무도하가(公無渡可歌) / 처용가	116
시 해석력 높이기•119	
유형모의2-6 찬가(讚歌) / 목마와 숙녀 / 간	120
시 해석력 높이기•124	

3. 심상 125

유형모의3-1 길 /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131
시 해석력 높이기•135	
유형모의3-2 강(江) 2 / 버	136
시 해석력 높이기•140	
유형모의3-3 만가(萬歌) -애(哀)소리	141
시 해석력 높이기•144	
유형모의3-4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 곡재(哭子)	145
시 해석력 높이기•150	
유형모의3-5 십자가 /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 전원(田園)에 남은 흥(興)을	151
시 해석력 높이기•155	

4. 시어의 의미 · 기능과 생략된 시구 156

유형모의4-1 참깨를 털면서 / 도다리를 먹으며	161
시 해석력 높이기•175	
유형모의4-2 목숨 /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房) 5	176
시 해석력 높이기•184	
유형모의4-3 일동장유개(日東壯遊歌)	182
시 해석력 높이기•185	
유형모의4-4 야청도의성(夜聽禱衣聲) / 연행개(燕行歌)	186
시 해석력 높이기•190	
유형모의4-5 깃발 / 종소리 / 면앙정가	191
시 해석력 높이기•194	

5. 운율 195

유형모의5-1 타는 목마름으로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200
시 해석력 높이기•204	
유형모의5-2 청산도 / 꽃담불	205
시 해석력 높이기•209	
유형모의5-3 농가월령가	210
시 해석력 높이기•214	
유형모의5-4 보리타작 / 모내기노래	215
시 해석력 높이기•218	
유형모의5-5 모란이 피기까지는 / 왕십리 / 남으로 창을 내겠소 / 청산별곡	219
시 해석력 높이기•223	

6. 형상화 224

유형모의6-1 맹인 가수 부부 / 사평역에서	230
시 해석력 높이기•234	
유형모의6-2 떠나가는 배 / 봉황수	235
시 해석력 높이기•239	
유형모의6-3 옹부가	240
시 해석력 높이기•244	
유형모의6-4 안민가(安民歌) / 굴병이 매암이 되어	245
시 해석력 높이기•248	
유형모의6-5 바다와 나비 / 나비와 광장 / 등고(登高)	249
시 해석력 높이기•253	

7. 시적 화자의 정서 · 태도 · 의도 254

유형모의7-1 나의 가난은 / 설날 아침에	281
시 해석력 높이기•285	
유형모의7-2 눈물 / 은수저	286
시 해석력 높이기•289	
유형모의7-3 누향사	290
시 해석력 높이기•294	
유형모의7-4 유산가	296
시 해석력 높이기•299	
유형모의7-5 찬가(讚歌) / 사모곡	300
시 해석력 높이기•304	
유형모의7-6 사슴 / 오랑캐꽃 / 또 다른 고향 / 사령(死靈)	305
시 해석력 높이기•310	

차례

8. 비평 관점과 올바른 감상 311

유형모의8-1 개봉동과 장미 / 그 여름의 끝 시 해석력 높이기•336	332
유형모의8-2 타는 목마름으로 / 껌데기는 가라 시 해석력 높이기•341	337
유형모의8-3 봉선화가 시 해석력 높이기•346	342
유형모의8-4 정과정(鏡瓜亭) / 개야미 불개야미 시 해석력 높이기•351	347
유형모의8-5 광야 / 울릉도 / 성북동 비둘기 / 하우요(夏雨謠) 시 해석력 높이기•357	352

9. 표현상의 특징 359

유형모의9-1 휴전선(休戰線) /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시 해석력 높이기•397	393
유형모의9-2 눈 / 가을의 기도 시 해석력 높이기•401	398
유형모의9-3 속미인곡 시 해석력 높이기•406	402
유형모의9-4 창 내고자 / 어이 못 오던가 / 나모도 바하돌도 시 해석력 높이기•411	407
유형모의9-5 혼몽 / 산촌에 밤이 드니 시 해석력 높이기•415	412
유형모의9-6 나의 참사로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 해석력 높이기•420	416

제3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종합실전모의 제1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머슴 대갈이 / 섬진강 고공가	422
종합실전모의 제2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해바라기의 비명(碑銘) / 귀천 제비가	430
종합실전모의 제3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바다와 나비 / 겨울 바다 영립(詠笠) / 어부가(漁夫歌)	438
종합실전모의 제4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낮은 우물이 있는 풍경 / 청포도 면양정가	442
종합실전모의 제5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오렌지 / 연사(軟柿) 빈녀음 / 시집살이 노래	455
종합실전모의 제6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작은 짐승 / 성탄제 견회요 / 개야미 불개야미	464
종합실전모의 제7회 및 시 해석력 높이기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풍장 사미인곡	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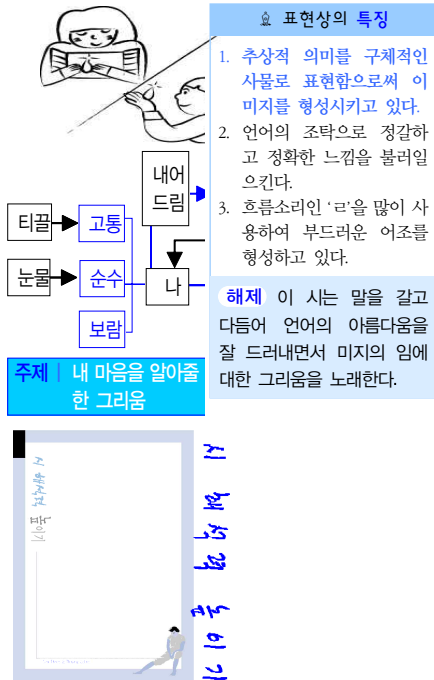
제4부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문제가 끝난 다음 쪽에 방법은 있다고 풀이한 해설과 정답이 있습니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가. 모든 시의 해설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모든 시의 구조와 주제를 그림과 도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구조와 의미 형성의 원리, 핵심 시어의 의미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표현상의 특징

각 시의 여러 가지 표현상의 특징을 수능에서 제시되고 있는 형태로 밝혀 수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3. 시 해석력 높이기

시구 자체를 이용하여 내재적으로 시를 풀이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가 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제1부 2016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1. 최근 연도의 수능 문제를 신고 해설하였으며 그 유형을 분석 제시하였습니다. 꼭 해설까지 잘 읽어 보시다.

다. 제2부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원리는 이렇다

2. 기출 수능 문항에서 역추론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방법은 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 두십시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방법은있다고 풀이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성

5-2

운 울 [유형모의]

5. [유형모의]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라. 제3부 현대시 고전시가 종합 실전모의

현대시, 고전시가의 신경향·고난도 문항을 대폭 수록하여 앞에서 배운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아가 어떤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제4부 방법은있다고 풀이한 정답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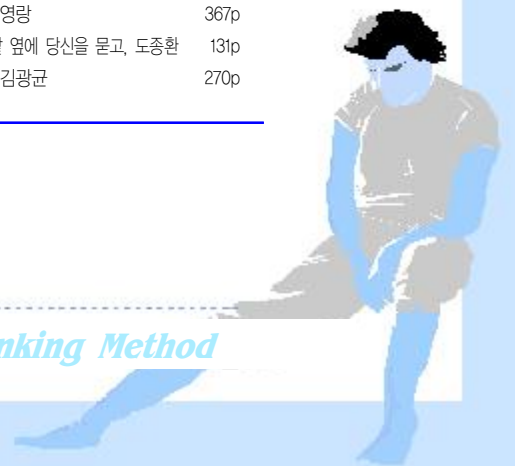
모든 문제를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풀이하여 방법은있다고 외우지 않아도 방법은있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품명별 찾아보기

가나다순

● 현대시								
● ㄱ								
가난한 사랑 노래, 신경림	328p		낙화, 이영도	363p		불국사, 박목월	361p	
가을의 기도, 김현승	370, 398p		낙화, 이형기	378p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417p	
가정, 박목월	96p		은 우물이 있는 풍경, 김중환	447p		뽕디기, 서정주	26p	
가지 않은 길, 프로스트	93p		낡은 집, 이운악	272p		● 人		
간, 윤동주	122p		낡은 집, 최두석	318p		사랑, 김수영	371p	
강 2, 박두진	136p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152p		사경, 김수영	270, 308p	
개봉동과 장미, 오규원	332p		남으로 창을 내겠소, 김상용	220, 225p		사슴, 노천명	305, 413p	
겨울 바다, 김남조	438p		내 마음을 아실 이, 김영랑	89p		사평 역에서, 객재구	230, 376p	
고고, 김종길	386p		내가 만난 이종섭, 김춘수	87p		산 너머 남촌에는, 김동환	381p	
고사, 조지훈	361p		농무, 신경림	75p		산, 김광섭	227p	
고풍, 신석초	359p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김중삼	101p		산·9, 김광림	458p	
고향 앞에서, 오장환	318p		누룩, 이성부	106p		산도화 1, 박목월	125, 261p	
광야, 이육사	352p		눈, 김수영	77, 398p		산이 날 에워싸고, 박목월	311p	
교목, 이육사	261p		눈물, 김현승	286p		살구꽃, 김억	197p	
구두 한 켤레의 시, 객재구	324p		님의 침묵, 한용운	383p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 오규원	381p	
구두, 송찬호	315p		● ㄷ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47p	
구성동, 정지용	256p		당신의 무덤가에, 도종환	360p		서시, 윤동주	92, 262p	
국화 옆에서, 서정주	57, 83p		도다리를 먹으며, 김광규	172p		석문, 조지훈	279p	
귀뚜라미, 이원섭	368p		들길에 서서, 신석정	236, 385p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46p	
귀천, 천상병	440p		떠나가는 배, 박용철	235p		설날 아침에, 김종길	281p	
귀족도, 서정주	113p		또 다른 고향, 윤동주	307p		섬진강1, 김용택	423p	
그 나무, 김명인	37p		● ㅁ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353p	
그 여름의 끝, 이성복	332p		마음의 고향 6- 초설, 이시영	380p		성애꽃, 최두석	314p	
그의 반, 정지용	366p		맹인 부부 가수, 정호승	230p		성탄제, 김종길	465p	
그의 행복을 기도 드리는 사람, 신동엽	279p		머슴 대길이, 고은	422p		승무, 조지훈	57, 165p	
길, 김기림	131p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219p		시대의 꿈, 박노해	313p	
길, 김소월	46p		모춘, 오장환	366p		십자가, 윤동주	151p	
갯발, 유치환	191p		목계 장터, 신경림	369p		● ㅅ		
까치밥, 이성부	111p		목련이 봄비에게, 장성수	362p		아니오, 신동엽	348p	
컵데기는 가라, 신동엽	259, 338p		목마와 숙녀, 박인환	121p		아버지의 마음, 김현승	95p	
꽃, 이육사	169p		목숨, 신동집	176p		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12p	
꽃담불, 신석정	205p		못 잊어, 김소월	80p		엄마 걱정, 기형도	380p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51, 457p		● ㅂ			여승, 백석	367p	
● ㄴ			바다와 나비, 김기림	249, 438p		연시, 박용래	456p	
나그네, 박목월	93p		바위, 유치환	258p		연탄 한 장, 안도현	106p	
나룻배와 행인, 한용운	89p		버, 이성부	136p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74p	
나뭇잎 하나, 김광규	383p		벽궁, 이희승	365p		오랑캐꽃, 이운악	306p	
나비와 광장, 김규동	249p		벽모의 묘, 황석우	78p		오렌지, 신동집	53, 455p	
나비의 여행 -아가의 방 5, 정한모	177p		붉은 고양이로다, 이장희	196p		오월, 김영랑	367p	
나의 가난은, 천상병	281p		붉은, 신동엽	138, 256p		옥수수 밭 옆에 당신을 묻고, 도종환	131p	
나의 침실로, 이상화	416p		봉황수, 조지훈	235p		와사들, 김광균	270p	
낙타, 이한직	466p							



작품명별 찾아보기

왕십리, 김소월 188p 외할머니의 뒤안 텃마루, 서정주 87p 우리가 물이 되어, 강은교 68p 울릉도, 유치환 352p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472p 유리창, 정지용 51p 윤사월, 박목월 225p 은수저, 김광균 286p 이별가, 박목월 330p 인동차, 정지용 387p	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김남주 201, 393p 해바라기의 비명 - 청년 화가 니콜라, 함형수 430p 향수, 정지용 368p 황혼, 이육사 316p 휴전선, 박봉우 255, 393p	붕선화가, 작가 미상 342p 북찬가, 이광명 167p 북창이 맑다카늘, 임제 35p 빈녀음, 허난설헌 459p 사리화, 이제현 70p 사모곡, 작가 미상 300p 사미인곡, 정철 44, 475p 산촌에 밤이 드니, 천금 412p 상사곡, 박인로 265p 상춘곡, 정극인 268p 성산별곡, 정철 267p 속미인곡, 정철 275, 402p 시집살이 노래, 작가 미상 242, 459p 안민가, 총담사 245p 야청도의성, 양태사 186p 어부가, 이현보 62, 441p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정철 20p 어이 못 오던가, 작가 미상 385p 연행가, 홍순학 186p 영립, 김병연 441p 옛날 석가모니불이, 일연 45p 용부가, 작가 미상 240p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16p 우부가, 작가 미상 66p 유산가, 작가 미상 296, 392p 율리유곡, 김광옥 269p 이런들 엇더히며, 이방원 257p 일동장유가, 김인겸 182p 전원에 남은 흥을, 김천택 153p 정과정, 정서 347, 468p 제망매가, 월명사 329p 제비가, 작가 미상 433p 찬기파랑가, 총담사 120, 300p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작가 미상 407p 처용가, 처용 116p 천만리 머나먼 길히, 왕방연 164p 청산별곡, 작가 미상 170, 221p 청초 우거진 골에, 임제 164p 춘면곡, 작자 미상 384p 하우요, 윤선도 355p 한거십팔곡, 권호문 270p 한숨아 세한숨아, 작가 미상 260p 훈몽, 이육봉 412p 흥망이 유수하니, 원천석 320p
자수, 허영자 460p 자야곡, 이육사 129p 자화상, 윤동주 326p 작은 짐승, 신석정 464p 절정, 이육사 365p 정념의 기, 김남조 364p 조국, 정완영 362p 조그만 사랑 노래, 황동규 388p 조찬, 정지용 374p 종달새, 박남수 363p 종소리, 박남수 191p 즐거운 편지, 황동규 41, 331p 지리산 뽕꼭새, 송수권 39, 314p 진달래꽃, 김소월 198p	A~Z The Last Train, 오장환 159p	
거 가시리, 작가 미상 260p 강설, 유종원 391p 강촌, 두보 228p 강호사시가, 맹사성 16p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작가 미상 364p 개아미 불개아미, 작가 미상 347, 467p 견회요, 윤선도 467p 고궁가, 허전 425p 고궁답주인가, 이원익 20p 고산구곡가, 이이 391p 곡자, 허난설헌 146p 공무도하가, 백수광부의 처 116p 관동별곡, 정철 162p 구름이 무심탄 말이, 이준오 70p 굴병이 매암이 되어, 작가 미상 245p 규원가, 허난설헌 112p 나모도 바히들도 업스 뉘해, 작가 미상 407p 넷가의 해오랏아, 신희 70p 농가월령가, 정학유 210p 누항사, 박인로 290p 늑들에 동난지이 사오, 작가 미상 76p 도산십이곡, 이황 33, 371p 독자왕유회유오영, 권선 322p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450p 등고, 두보 250p 만가 -애소리, 작가 미상 141p 만분가, 조위 167p 면양정가, 송순 276, 449p 모내기노래, 작가 미상 215p 모죽지랑가, 득오 146p 보리타작, 정약용 215p	고전 시가	
크 찬송, 한용운 278p 참깨를 털면서, 김준태 171p 청노루, 박목월 372p 청산도, 박두진 206, 388p 청포도, 이육사 447p 추억에서, 박재삼 389p 춘향 유문 - 춘향의 말3, 서정주 339p	ㄱ~ㅎ	
ㄷ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200, 337p 통박, 박노해 263p 파초우, 조지훈 376p 폭포, 김수영 379p 폭포, 이형기 51p 물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기택 12p 풍장, 이한직 474p 풍장1, 황동규 472p		

제1부

현 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 해설과 유형 분석

현대시·고전 시가 해석법

1. 현대시와 고전 시가는 주관적인 글이므로 서정적 자아가 진술한 사항에 대하여 왜 그렇듯이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
2.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핀 다음 지엽적인 의미를 파악한다.
3. 중심 제재에 대하여 어떠한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가를 파악해 본다.
4. 시적 화자의 처지나 상황, 시적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해 본다.
5. 표현상의 특징(운율, 표현 기법, 어조, 화자의 태도 등을 알아보고 이것이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는가 알아본다.
6. 시의 구조(선경후정, 수미상관, 시간적 구성, 공간적 구성, 가승전결, 기서결, 연상적 구성, 열거식, 인과적 구성 등)가 특별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7. 사용된 시어의 특징과 관습적 원형적 상징 의미를 알아본 후 이들의 의미가 문맥에서 알맞은가 생각해 본다.

작품명과 작가

㉠아침의 이미지 1, 박남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어둠 : 만물을
낳는 생명체
(활유법)

아침 : 만물
이 생동하는
시간

새, 돌, 꽃

만물(대유법)

주제 | 어둠이 생산한 아침 이미지
의 생동적이고 순수한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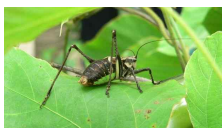
- 1 공간각적인 표현으로 생동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
- 2 잉태와 생산의 이미지를 활용해 어둠에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해제 아침이면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사물들의 이미지를 소재로 하여 모든 물상이 잠에서 깨어나 일상을 시작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김가택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텔레비전 : 기계
문명(대유법)

풀벌레 : 자연(대유법)

주제 | 자연의 작은 소리에서 느끼는 즐거움

표현상의 특징

- 1 대유적 표현으로 자연의 소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2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를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다.

해제 기계 문명에 휩싸여 소원해졌던 자연의 작은 소리들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1. 2016학년도 A, B형 공통 문제와 해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나

- 텔레비전을 끄자
-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 [B]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 [C]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 [D]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 [E]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의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 낳고, 꽃을 낳는다’라는 구절은 어둠의 생산력을 표현하고 있으나 (나)의 어둠은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등의 구절에서 보듯 기계 문명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대상들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구실을 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가)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구절에서 어둠 다음에 이어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을 서술하고 있고 (나)는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등의 구절에서 어둠이 계속되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어 적절하다. ④ (가)에서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등의 구절이 어둠 다음에 변화된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나)는 ‘벌레 소리들 환하다 /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라는 구절에서 방 안의 변화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즐거운 지상의 잔치’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과 지상의 즐거운 움직임이 어울리는, 생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생기 넘치고 즐거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일상적인 삶을 위하여 가볍게 움직이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아침이면, /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어둠으로 보이지 않았던 사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무거운 어깨를 털고 ~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사물들이 아침에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④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폴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 **문항 분석** 시구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C의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
다'라는 구절은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 되돌아간 소
리들을 생각한다'라는 구절과 관련을 맺으면서 작은 울음을 우는 풀벌레
에 대한 애처로운 정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A의 '풀벌레 소리 /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라는 구절은 텔
레비전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에 대한 화자의 반가움을
표현하고 있다. ② B의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라는
구절은 작은 울음을 우는 풀벌레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됨을 표현함으로
써 인식의 범위를 넓힘을 보여준다. ④ D의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
게 왔다가 /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라는 구절은 텔레
비전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작은 울음소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표현이다. ⑤ E의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 허
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단다'
라는 구절은 풀벌레 소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환해진 마음 즉 기쁜 마
음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 **해답** ③

2. 2016학년도 A형 문제와 해설

작품명과 작가

㉠용비어천가, 정인지 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나무, 샘

국가(상징)

꽃, 열매, 바다

문화의 번성
(상징)

경천근민

주제 표출

주제 | 2장 : 조선의 무궁한 발전 송축
125장 : 후손들에 대한 권계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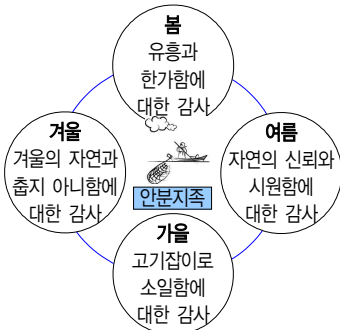
- 2장은 상징과 대구적 표현으로 동일 의미를 반복하고 있다.
- 125장은 고사를 인용하여 후왕들에 대한 권계를 표현하고 있다.

해제 2장은 조선의 번성을 상징적으로 송축하고 있으며 125장은 고사를 활용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후왕들에게 권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강호사시가, 맹사성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함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떡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복년 :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믿겠습니까 : 중국 한나라의 태강왕이 정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 ②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 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⑤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제2장에서는 나무와 샘 즉 자연을 국가로 상징하여 바람직한 국가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고 제125장에서는 성신이 왕위를 이어도 경천 근민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제2장의 1행과 2행은 대구를 이루면서 나무와 샘의 발전상을 제시하고 있다. ② 1행은 ‘-으시니’, 2행은 ‘-으시리이다’, 3행은 ‘-겠습니까’로 끝맺고 있다. ③ 제2장은 수신자가 없으나 제125장은 ‘임금’으로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④ 제125장은 ‘천세, 누인개국’ 등등 한자어를 많이 쓰고 있으나 제2장은 순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다.

✓ **해답** ⑤

표현상의 특징

- 1 동일한 통사 구조와 어절을 반복하여 율격을 강화하고 있다.
- 2 계절의 순환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즐기며 한가롭게 살아가는 강호 생활과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심정을 네 계절에 따라 한 수씩 노래한 연시조이다. 대자연에 파묻혀 안빈낙도하며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선비의 일상생활을 읊으면서도 그것이 오직 임금의 은혜로 가능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유교적 충의 이념(忠義理念)으로 귀결시킨 조선 전기 시조의 특징을 잘 드러낸 것이다.

41 <보기>는 (나)의 글쓰기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exists$
④ $\neg, \exists, \subset$
⑤ $\perp, \exists, \subset$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ㄱ : 각 수 초장은 ‘강호(江湖)에 봄(여름, 가을, 겨울)이 드나’로 시작하고 있어 적절하다. ㄴ : 각 수의 중장은 ‘탁료계변(濁都溪邊)에 금린어(錦鱗魚),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 ‘소정(小艇)에 그물, ‘샷샷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등인데 이들은 주변의 자연과 이를 즐길 수 있는 소도구 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ㄷ : 각 수의 중장은 ‘하음도 역군은이샷다’로 통일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 **오답 바꾸기** ㄴ : 각 수 초장의 후반부는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고기마다 살찌 있다’,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등으로 되어 있는데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라는 구절은 내면의 감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는 자신의 정황을, ‘고기마다 살찌 있다’,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등은 외부의 정황을 표현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 해답 ④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장’,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조건에 맞지 않은 감상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소장’, ‘그물’ 등의 인공물은 강호에서 ‘이 몸이 소일(消日)’하는데 필요한 살림 도구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꽃 좋고 열매 많나니’, ‘내가 일어 바다에 가나니’ 등과 각각 관련을 맺으면서 문화가 번창하고 위대한 문화를 이룬다는 의미이므로 왕조의 송축과 관련이 있다. ② 경천근민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부지런히 돌본다’란 의미이므로 정치적 의식과 관련이 있다. ③ ‘한가’하게 ‘소일’하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지만 이러한 것들에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란 표현으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⑤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지칭하는 말이며 ‘누인개국(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나’라는 표현과 관련을 맺으면서 새 왕조에 대한 송축이라는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나)의 ‘강호’는 각 수의 중장에서 개인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고, 종장에서 ‘역군은(亦君恩)이샷다’라는 표현과 관련을 맺으면서 정치적 의미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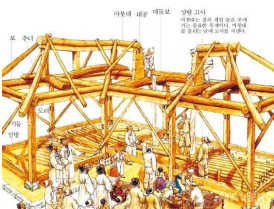
✓ 해답 ④

3. 2016학년도 B형 문제와 해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동량재 = 뛰어난 인재(은유)

주제 | 당쟁의 타살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

표현상의 특징

1. 유추적 사고를 통해 동량재를 뛰어난 인재로 비유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쟁의 타살공론 속에 인재가 버려지는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고공답주인가, 이원익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마누라 : 임금
종 : 하급 신하
어른 종 : 화자이자 고위 신하
가도 : 국가의 도리

우회적 표현
풍자성 강화

주제 | 국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제안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義論)도 하도 할사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비 식여 서근 집을 뉘라서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혀진 담 뉘라서 곳쳐 졸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서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타 계시거니
옥 굵튼 얼굴리 편혀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홀서이고
헐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헐려니와
도로혀 헤어혀니 마누라 타시로다
㉢넌 주인 외다 헐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혀야 사뢰나이다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헐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의 표현 기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 연쇄법과 반복법을 사용하여 강한 리듬감을 형성시키고 있으나 (가)에는 이러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오답 비루기 ② (가)의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흐야 어이 홀고'라는 구절에서 '홀고'는 '할까'란 의미로 설의법이다. 이는 화자의 답답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도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서 힘써 홀고'라는 구절에 동일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였다. ③ (가)에서는 직유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참고로 동량재→인재, 집→국가, 목수→인재 관리자(임금 등) 등은 은유법이다. 또 (나)에서는 '옥 갓튼 얼굴리 편히실 적 몇 날이라'라는 구절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였다. ④ (가), (나)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하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 해답 ①

표현상의 특징

- 1 국가를 집으로 유추하여 표현함으로써 우회성과 풍자성을 높이고 있다.
- 2 연쇄와 반복을 통해 울격을 강화하고 있다.
- 3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

● 해제 국가를 집에 비유해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작품이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시적 대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새끼 쏘기'는 '마르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라는 구절에서 보듯 화자가 청자에게 만류하는 행위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에 대해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라는 표현으로 소임을 다하지 않는 이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② ㉡은 '아니 멀리 단이거든 /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서 힘써 홀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가까이 있는 도적으로 경계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③ ㉢은 '외다 흐기 종의 죄 만컨마는 /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흐야 사되나이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사되는 대상 즉 청자이고,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서 보듯 화자는 청자를 설득하고 있다. ⑤ ㉤은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공정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이다.

✓ 해답 ④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 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못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험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혀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유추적 사고로 볼 때 시구의 의미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 정답 찾기 집을 국가로 유추하여 본다면 (가)의 '동량재'는 '헐쓰더 기운 집' 즉 기울어진 국가를 재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고 (나)의 '어른 종'은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라는 구절에서 보듯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믿어야 할 대상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나)의 '기운 집'도 '진실노 이리 흐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바로 세우고자 하는 대상이다. ③ (가)의 '의논'은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라는 구절에서 보듯 시급한 상황에 말만 많다는 의미이므로 '탁상공론'이란 뜻이다. (나)의 '논의'는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 명령을 뉘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국가 일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란 뜻이다. ④ (가)의 '못 목수'는 '허둥대다 말려느다'라는 구절에서 보듯 허둥거리기만 하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신하란 의미이지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이란 의미가 아니다. (나)의 '험 업는 종'은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라는 구절에서 보듯 나라 일에 큰 책임이 없어 무시할 수 있는 사소한 신하란 의미이다. ⑤ (가)의 '못 목수'가 실무를 담당하는 신하란 의미이므로 '고자 자'는 실무를 할 수 있는 도구의 의미이다. (나)의 '문혀진 담'은 '뉘라셔 곳쳐 쓸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고쳐 쌓아야 할 대상, 즉 국가의 방어벽이란 의미이다.

✓ 애답 ①

제2부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및 유형모의



1

문항의 이해와 출제 경향



 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식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장스야, 하 거북이 웨지 말고 게짓이라 허렴은.	 이애, 너의 온갖 오뇌, 운명을 나의 꿈은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싫어 주마.

반어 역설
풍자 표현 기법

시에서는 사물을 더 명확히,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꾸미는 기교나 사고 방식으로 반어, 모순 형용·역설, 풍자, 비유 등의 문학적 기교가 많이 사용되는 데 이것을 구별하여 찾아내거나 그 효과와 거기에 담긴 의미나, 필자의 의도 알아내는 문제가 출제된다.

2

원리는 이렇다



(1) 반어(反語, irony)

표현한 것과 표현의 의도가 상반된 진술 방식, 따라서 반어적 표현에는 ‘말한 것’과 ‘의미한 것’ 사이의 긴장, 대조, 혹은 갈등이 담겨 있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인상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 문정희, 겨울 일기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는 표현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아무 일도 못하고 가슴 아프게 지냈다’는 의미의 반어이다.

예문보기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 기형도, 안개



‘희고 아름다우며’는 하얗게 병든 모습을,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는 ‘고생 속에 어렵게 자라’를 의미하는 반어이다.

예문보기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는 고이 보낼 수 없는 심정을 담은 반어적 표현이다.

예문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말이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 적어도 그때까지는 못잊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2) 역설·모순 형용

- ① 역설(逆說, paradox) : 겉으로 보면 명백히 모순되고 이치에 닿지 않는 듯한 표현 속에 어떤 진실을 담고 있는 진술 방식인데 심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모순 형용이 앞 말과 뒷말 사이의 언어적 모순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비해 역설은 내용 자체가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대로 진리를 담은 표현이다. **독자의 주의를 강하게 환기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 마음들을 보아라. 버가 춤출 때,
버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이성부, 버

▶ ‘죄도 없이 죄지어서’는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일면 부정한 권력에 누명을 써서 죄를 지은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 ‘말소리에 귀먹고’,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등은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실제로 임의 목소리만 들리거나 임의 얼굴만 보인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 따위야 /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 신경림, 농무(農舞)

▶ 비료값도 안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다. 자칫 반어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춤이란 슬픔 속에서도 사람을 취하게 하는 요소가 들어 있다고 대부분의 심리학자는 말하고 있으므로 역설이 된다.

예문보기

이런 경이(驚異)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 김수영, 현대식 교량

- ② 모순 형용(矛盾 形容, oxymoron) : 모순 형용은 서로 모순 대립되는 말의 병치(並置)로 특수 효과를 얻으려는 시의 기법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모순 관계가 이루어지는 진술 방식인데 표층적 역설이라고도 한다.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혼드는
영원한 나스텔지아의 손수건

— 유치환, 깃발

소리가 없으면 아우성이 못 되고 아우성이면 소리가 커야 하므로 진술의 앞부분이 성립되면 뒷부분이 성립되지 않고 뒷부분이 성립되면 앞부분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순 형용이다.

예문보기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정지용, 유리창 I

예문보기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예문보기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조지훈, 승무

작품명과 작가

뻘디기,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풍자

(3) 풍자(諷刺, satire)

작품을 우스꽝스럽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가운데, 날카로운 비판 의식을 숨겨 두는 진술 방식인데, 주로 인간의 악덕과 어리석음,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쓰인다.

예문보기

예수의 손발에 못을 박고 살리우듯이
그렇게라도 산다면야 오죽이나 좋으리요?
그렇지만 여기선 그 못도 그만 빠자는 것이야.
그러고는 반창고나 찢금씩 그 자리에 부치고
뻘디기 니야까나 끌어 달라는 것이야.
'빠억 빠어 뻘디기, 한 봉지에 십원, 십원, 비 오는 날 뻘디기는 더욱 맛이 좋습네.'
그것이나 겨우 끌어 달라는 것이야.
그것도 우리한테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민학교 육학년짜리 손자놈들에게까지 이어서
 끌고 끌고 또 끌고 가 달라는 것이야.
 우선적으로, 열심히, 열심히, 제에길.

— 서정주, 뺨디기

➡ 희망이나 꿈을 갖지 못하고 일상의 생활에만 급급해야 하는 현대인의 생활을 뺨디기니야까나 끌고
 살아야 하는 생활로 풍자하고 있다.

예문보기

넥타이를 한 흰 식인종은
 니그로의 요리가 칠면조보다도 좋답니다.
 살갗을 희게하는 검은 고기의 위력
 의사 -콜베-르씨의 처방입니다.
 -헬매트를 쓴 피서객들은
 난잡한 전쟁 경기에 열중했습니다.
 숲은 독창가인 심판의 호각 소리
 너무 흥분하였으므로
 내복만 입은 파씨스트
 그러나 이태리에서는
 설사제는 일체 금물이랍니다.

— 김기림, 시민 행렬

➡ 제 1~4 행에서는 백인들의 흑인 탄압을, 제 5~7 행에서는 전쟁을, 제 8~11행에서는 파씨스트의 광
 분을 풍자하고 있다.

호 표현상의 특징

1. 비속어를 써서 부정적 현실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2.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흉내 내어 표현함으로써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3. 현실적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해제** 비속어를 써 가며 사회적 모순으로 인한 가난의 고통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4) 비유법

① 개념 : 어떤 사물이나 관념을 그것과 유사하거나 관련성이 있는 다른 사물이나 관념에 빗대어 제시하는 방법

① 원관념[주지(主旨)] : 표현하고자 하는 원래의 사물이나 개념

② 보조 관념[매재(媒材)] : 원관념을 실어 나르는 구실을 하는 보조적인 사물이나 관념

• 주관적 변용(사이비 진술) - 비유와 상징도 일종의 거짓 진술(사이비 진술)이며, 이 외에도 사물을 자신의 의지대로 변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이비 진술은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거나 거짓이지만 시의 문맥 전체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예문보기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칭칭 동여서 매어나 볼까

— 작가 미상, 민요

➡ 세월은 묶거나 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서정적 자아의 의지로 변용하여 동여 맨다고 표현하고 있다.

• 비유어는 참신하고 독창적이어야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진부한 비유를 사비유(死譬喩)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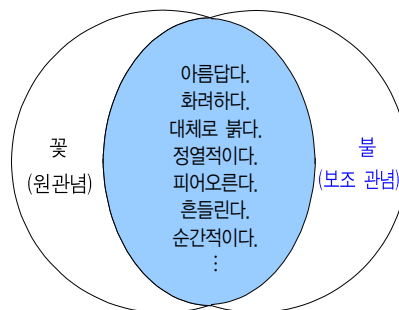
예문보기

심금(心琴)을 올린다.

▶ 심금은 원래 마음을 올리는 거문고란 뜻이지만 마음을 비유하는 사비유에 해당한다.

- 원관념은 직접 제시되기도 하지만 색채, 모양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환기되기도 함.

<비유의 성립 과정>



▶ 대상을 서로 유추(類推)하거나, 대상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비유를 성립시킨다.

② 기능

- ㉠ 의미 확충 : 전달의 측면에서, 원관념만으로는 불리일으키기 어려운 미묘한 의미의 환기를 가능하게 한다.
 - ㉡ 형상화 : 비유를 통해 사물 또는 관념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될 수 있다. 곧 심상을 이룰 수 있다.
 - ㉢ 개성 표출 : 같거나 비슷한 비유의 반복 사용은 특정 작가나 문학 양식의 특징을 드러낸다.
- ③ 종류 : 두 사물(개념) 사이의 공통점을 직접 드러내느냐 숨기느냐에 따라 갈래가 달라진다.
- ㉠ 직유법 : ‘~처럼, ~같이, ~인 양’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공통점을 직접 밝히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명확하게 전달되므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다.**

예문보기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 신경림, 농무

▶ 원관념 :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걱정이 공통점 : 울부짖는다.
원관념 : 또 어떤 녀석 보조 관념 : 서림이 공통점 : 해해댄다.

- ㉡ 은유법 : 공통점을 숨기어 독자들이 상상하도록 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공통점이 숨겨지므로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예문보기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

— 서정주, 광화문

원관념 : 광화문 보조 관념 : 종교 공통점 : 사람들이 떠받든다, 숭고하게 여긴다.

- ㉔ 의인법 : 추상적 개념이나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 인격적 특질을 부여하는 비유 방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예문보기

시간의 발은

소리나지 않는 계단을 뛰어내려

저만치 달아나고 있다.

— 강규형, 쓰러지는 잔

시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감정 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 ㉕ 감정 이입 : 시적 화자의 감정을 특정 사물(대상)에 집어넣어, 그 사물의 속성으로 체험하는 방법. 의인화의 한 방편.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시적 화자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낸다.**

예문보기

귀뚜리 저 귀뚜리 어여쁘다 저 귀뚜리

어인 귀뚜리 지는 달 새는 밤의 긴소리 절절이 슬픈 소리 저 혼자 울어여어 사창에 여윈 잠을 살뜨리도 깨우는구나.

두어라 제 비록 미물(微物)이나 무인동방(無人洞房)에 내 뜻 알 리는 저 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고시조

귀뚜리가 즐겁게도 울 수 있고 슬프게도 울 수 있을 것인데 위 시에서는 절절이 슬픈 소리로 혼자 운다고 표현하여 시적 화자의 슬픔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㉖ 객관적 상관물 : 감정을 객관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사물.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예문보기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흠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위 시에서 '나룻배'는 행인을 강물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실을 한다. 이는 누가 보아도 쉽게 판단해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보기

초롱에 불빛, 지친 밤 하늘
 굽이굽이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차마 아니 솟는 가락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호올로 가신 님아.

— 서정주, 귀촉도(歸蜀途)



위 시에서 ‘새’는 귀촉도를 가리키며 귀촉도는 자규, 망제, 두흔, 두우, 두백 등으로도 불리는데 중국 촉(蜀)나라 사람인 망제(望帝)의 죽은 님이 두견이가 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객관적으로 슬프게 우는 새의 대명사로 되어 있다.

예문보기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눈길 위에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마음의 기(旗)는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나에게 원이 있다면
 뉘우침 없는 일몰(日沒)이
 고요히 꽃잎인 양 쌓여가는
 그 일이란다.

황제의 항서(降書)와도 같은 무거운 비애(悲哀)가
 맑게 가라앉은
 하얀 모랫벌 같은 마음씨의
 벼은 없을까.

내 마음은
 한 폭의 기(旗)

보는 이 없는 시공(時空)에서
 때로 울고 / 때로 기도드린다.

— 김남조, 정념의 기



위 시에서 ‘기(旗)’는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가만히 있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가 때로 갈등하고 때로 평온을 되찾는 심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잘 나타낸다.

- ㉔ 환유법 : 사물의 속성으로 그 사물 자체를 가리키는 비유 방법으로
사물의 속성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예문보기

송장이
수백만(數百萬)
붉은 피가
삼천리.

— 송옥, 해인연가(海印戀歌)7

▶ 삼천리는 한반도나 한국의 전국토를 가리킨다.

- ㉕ 제유법 : 사물의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하는 비유 방법으로 사물의
부분적 특징이 인상적으로 기억된다.

• 대유법은 환유법과 제유법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수사법이다.

예문보기

신이여 우리 아버지 당신 곁에 오거들랑
그에게 잘 드는 낫과 삽 한 자루씩 주세요.

— 이유헌, 아버지의 흙2

▶ '낫과 삽'은 농기구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 ㉖ 풍유법 : 암시적, 풍자적 비유 방법으로 교훈성이 강하며, 가볍게 공격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저들의 칭찬과 모범 표창이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임을,
근로자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보살핌이
허울 좋은 솜사탕임을 똑똑히 깨달았다.

— 박노해, 이불을 꿰매면서

▶ '고양이 꼬리에 매단 방울 소리'는 이루기 어려운 허황된 희망을 의미한다.

- ㉗ 중의법 : 하나의 말을 가지고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방법
이다.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독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효
과가 있다.

예문보기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하노라.
주려 죽을진들 재미도 하난 것가.
비록애 푸새엿것인들 귀 뉘 따해 났다니.

— 성삼문, 고시조

▶ '수양산'은 중국의 '수양산'과 '수양 대군'을 뜻하고, '재미'에서 '미'는 '고사리'와 '수양대군의 녹'을 뜻한다.

(5) 강조법

- ① 개념 : 말이나 글의 표현을 보다 생생하고 절실하게 하기 위하여 **글이나 말에 힘을 주어 세차게 나타내는 수사법이다.**
- ② 종류
- ㉠ 과장법 : 사물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대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잘 들어낸다.**

예문보기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 고은, 성묘

▶ 슬퍼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눈에 피(선지)가 고인다고 과장하고 있다.

- ㉡ 영탄법 :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등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강하게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고달픈 얼굴을 마주 대고 나직이 웃으며 얘기하노니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 한 떨기 영혼이여! — 조지훈, 풀잎단장

- ㉢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낱말, 구절, 문장 등을 거듭 써서 뜻을 강조법이다. **울격미를 형성시키고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건우의 노래

- ㉣ 점층법 : 점점 힘 있는 말이나 중요성이 큰 말을 거듭 써서 글의 힘을 강하게, 높게, 크게, 깊게 고조시키거나 반대로 나열하여 약화시키는 강조법이다. **독자를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는 데 효과적이다.**

예문보기

사랑이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뵈단 말이 그것이 더욱 거짓말이
나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뵈오리. — 김상용, 고시조

- ㉤ 대조법 : 상반·상대되는 어구 또는 사상(事象)을 맞세워 그 형식이나 내용의 다름을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보이는 강조법이다. **대상의 차이 점을 강조하여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중략)
 삼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거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시리다. — 김기림, 바다와 나비

➡ 흰나비와 새파란 초승달의 색상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 **현재법** :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예정된 일을 현재 눈앞의 일처럼 나타내어 실감을 돋우는 강조법이다. **사실감이나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당나라의 현종이 춤을 춘다.
 수왕이 미쳐서 춤을 춘다.
 양귀비가 알몸으로
 춤을 춘다. — 박성룡, 양귀비꽃

- ㉡ **억양법** : 처음엔 치켜 올렸다가 나중에 낮추거나 이와 거꾸로 표현하는 강조법이다. **두 사실을 명백하게 대조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금도끼로 찍어다가
 은도끼로 다듬어서,
 손아,
 조국아 나의 폐허여 — 전봉건, 사랑을 위한 되풀이

➡ 금도끼와 은도끼로 잘 다듬는다고 치켜 올렸지만 오히려 조국이 폐허가 되고 말았다는 의미로 억양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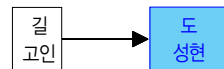
- ㉢ **연쇄법** : 앞 구절의 끝 말을 다시 뒷 구절의 머리에 놓아 그 뜻과 리듬을 인상 깊게 하는 강조법이다.

예문보기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뵈.
 고인을 못 뵈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거던 아니 예고 어이리. —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명과 작가
 도산십이곡, 이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학문에의 정진

표현상의 특징

1.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2. 상징어를 사용해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연쇄법을 사용하여 글을 매끄럽게 연결시키면서 길을 상징적 의미로 활용해 학문에의 정진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6) 변화법

① 개념 : 글이 너무 단조롭거나 지루한 경우, 말에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수사법이다.

② 종류

㉠ 대구법 :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하여서 병행의 인상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변화법으로서,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켜 강한 인상을 준다.**

예문보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도치법 : 문법이나 논리상 말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변화법으로서 **생동감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

예문보기

나는 내게서 끝나는
 무한의 눈물겨운 끝을
 내 주름잡힌 손으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며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드디어 입을 다문다 -나의 시는.

— 김현승, 절대 고독

㉢ 생략법 : 말의 일부를 감추는 변화법으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암시하거나 여운을 남긴다.**

예문보기

마돈나, 언젠들 안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끄울려 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네 침실이 부활의 동굴임을 네아 알려만......

— 이상화, 나의 침실로

➡ '왜 오지 않느냐? 빨리 오너라'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 설의법 :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일부러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변화법으로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예문보기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 이육사, 광야

➡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7) 언어 유희(言語遊戲, pun)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한 말이나, 동음 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것, 즉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한 말장난을 뜻한다.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치정(癡情) 같은 정치가
상식(常識)이 병인 양하여
포주나 아내나 빛과 살불이와
현금이 **실현**하는 **현실** 앞에서
다달은 낭떠러지!

— 송옥, 하여지향

음절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재미와 함께 긴장감을 준다.

예문보기

북창(北窓)이 맑다커늘 우장(雨裝)이 업시 길을 나니
산(山)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 비 맛жат시니 얼어 잘까 하노라

— 임제

찬비는 한우(寒雨)라는 기생을 나타내는데 기생의 이름에 들어있는 한(寒)의 의미를 이용해 '얼어 잘까'라고 표현하고 있어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임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표현상의 특징

1.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흥미롭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언어 유희를 이용하여 찬 비에서 연상된 임에 대한 연정을 흥미롭게 고백하고 있는 작품이다.

3 방법은 있다



표현 기법 및 발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반어는 언어적으로는 아무 모순이 없으나 상황적으로 상반된 표현인가로 판단한다.
2. 모순 형용은 앞뒤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 나란히 놓였는가로 판단한다.
3. 역설은 언어 자체의 모순보다도 상황의 모순이 있으며 다른 면에서 진실된 것인가로 판단한다.
4. 풍자는 표현한 대상이나 의도를 축소시켜 표현하므로 이를 확대시켜 볼 때 사회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로 판단한다.
5. 언어 유희는 다음을 확인해 본다.
 - 음절이 도치되는 말로 짝을 이루고 있는가를 살핀다.
 - 부분적으로 비슷한 발음이 반복되고 있는가를 살핀다.
 - 제시된 말을 앞뒤의 말과 비슷한 발음으로 된 동의어로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보조 관념이 의미하는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7. 표현된 시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선명한 인상, 효과적 전달, 강조, 새로운 관심 환기, 여운 등)를 생각해 본다.
8. 생략된 내용을 추론할 때에는 대구 등 문맥에 의해 필연적으로 들어갈 내용 알아본다.
9. 수사법의 종류를 익혀 주어진 시 구절에 사용된 수사법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10. 표현하고자 한 실체를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비유법
11. 독자의 인상을 깊게 하기 위하여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강조법
12. 단순하거나 무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구절이나 시행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 변화법
13. 사물을 어떤 형태로 비유하고 있는가를 알아본다.
14. 사물을 주관적 변용은 대상을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형태로 활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선제리 아낙네들

- 고은

먹밤중 한밤중 새터 중뚝 개들이 시끌썩하게 짖어댄다
 이 개 짖으니 저 개도 짖어
 들 건너 갈매 개까지 덩달아 짖어 맨다
 이런 개 짖는 소리 사이로
 언뜻언뜻 까 여 다 여 따위 말끝이 들린다
 밤 기러기 드높게 날며
 추운 땅으로 떨어뜨리는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의좋은 그 소리하고 남이 아니다
 콩밭 김칫거리
 아쉬울 때 마늘 한 집 이고 가서
 군산 묵은장 가서 팔고 오는 선제리 아낙네들
 팔다 못해 파장떨이로 넘기고 오는 아낙네들
 시오릿길 한밤중이니
 십릿길 더 가야지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빈 배 요기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그래도 이 고생 혼자 하는게 아니라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라
 얼마나 의좋은 한세상이더냐
 그들의 말소리에 익숙한지
 어느새 개 짖는 소리 뜸해지고
 밤은 내가 밤이다 하고 말하려는 듯 어둠이 눈을 멀뚱거린다

[A]

나

그 나무

- 김명인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놓고
 앞줄 아름답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B]

작품명과 작가

㉠ 선제리 아낙네들, 고은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선제리 아낙네들의 의중계
사는 삶의 아름다움

표현상의 특징

1.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런'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켜 운율감을 강화하고 있다.
2. 설의법을 구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가난하여도 의중계 살아가는 선제리 아낙네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명과 작가

㉡ 그 나무, 김명인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늦된 나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요 표현상의 특징 요

1. 시적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2. 의문형 종결 어미를 구사하여 소망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시적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대상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燒紙)*,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01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대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한다.
- ② [A]는 [B]와 달리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조성한다.
- ③ [B]는 [A]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입체감을 부여한다.
- ④ [B]는 [A]와 달리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부각한다.
- ⑤ [B]는 [A]와 달리 의성어를 통해 구체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한 두 구절의 표현 기법을 적절하게 대비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는 ‘먹밤중과 한밤중’, ‘이, 저, 이란’ 등등의 유사한 구절을 병치시키고 있지만 [B]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가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A]에는 유사한 구절의 병치만 있지 대조는 없다. ③ [B]와 [A] 둘 다 공감각적 표현은 없다. ④ [A]는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 있고 [B]는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다. ⑤ [A]에서 ‘까 여’, ‘다 여’ 등은 사람 말의 종결 어미를 따온 것으로 의성어가 아니며 [B]에서도 의성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러 산 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 울어
때로 울음 울어
석 석 삼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쁜 설움에 맛이 들고
그것이 실상은 한 마리의 뻐꾹새임을
알아냈다.

지리산 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뻐꾹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로 울음 우는 것을
알았다.

지리산 중
저 연연한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림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섬진강 섬진강
그 힘센 물줄기가
하동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의 여러 작은 섬을
밀어 올리는 것을.

봄 하룻날 그 눈물 다 슬리어서
지리산하에서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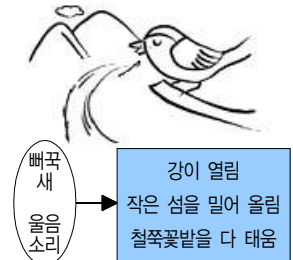
* 길쁜 : 길이 덜 뜬.

* 세석 : 지리산 정상 아래 부근의 지명.

작품명과 작가

가) 지리산 뻐꾹새, 송수권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뻐꾹새 울음소리의 실체와 그 영향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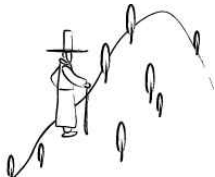
1. 중심 시적 대상이 다른 대상에 미친 영향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다.

해제 자유 연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이미지를 다양화하고 있는 이 시는 뻐꾹새 울음소리가 끼친 영향을 이 이미지로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 작품명과 작가

④면앙정가, 송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8행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

9행~끝행 면앙정의 정경

주제 |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며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

요 표현상의 특징

1.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려 표현하고 있다.
2.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3. 4음보를 반복해 강한 율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작품은 자연을 기리는 송가(頌歌)이면서 자연을 소재로 안빈낙도하는 삶의 행복감과 자부심을 잘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무등산 한 활개 뵈가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떴쳐 와 제월봉(霽月峰)^{*}이 되었거늘
무변대야(無邊大野)^{*}에 무슨 짐작 하노라
일곱 굽이 한데 뭉쳐 우뚝우뚝 벌여 논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앓혔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정자를 앓혔으니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렸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히 퍼진 듯이
넓거든 기노라 푸르거든 희지 마나
쌍룡이 뒤흔는 듯 긴 깃을 펼쳤는 듯
어디로 가노라 무슨 일 바빠서
달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 좇은 사정(沙汀)^{*}
은 눈같이 퍼졌거든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앞으락 내리락 모이락 흩으락
노화(蘆花)^{*}를 사이 두고 우리곰 좇느니노
넓은 길 밖이요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꽃은 것은
뵈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굵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저어치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짓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거든
원근창애(遠近蒼崖)에 머문 짓도 하도 할사

[B]

- 송순, 『면앙정가』 -

* 무변대야 : 끝없이 넓은 들판.

* 사정 : 모래톱.

* 노화 : 갈대.

0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한다.
- ② [B]와 달리, [A]는 음보율을 통해 정형적 운율미를 느끼게 한다.
- ③ [A]와 [B] 모두 어순의 도치를 통해 의미를 강조한다.
- ④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냉소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A]와 [B]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한다.

● **문항 분석** 두 시구의 표현 기법과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A]에서는 ‘빠꼭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라는 구절에서 보듯 활유법이나 의인법을 구사하여 동적 미감을 형성하고 있으나 [B]에서는 물을 ‘쌍룡이 뒤흔드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이란 구절 등을 통해 동적 미감을 시각적으로 직유법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물 쫓은 사정(沙汀)은 눈같이 퍼졌거든’라는 구절에서는 모래밭을 직유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배제기** ② ‘쌍룡이/ 뒤흔드는 듯/ 긴 김을/ 펼쳤는 듯//’라는 구절에서 보듯 강한 음보율을 드러내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③ 둘 다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둘 다 반어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⑤ 둘 다 영탄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해답**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즐거운 편지

< I >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 II >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잊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서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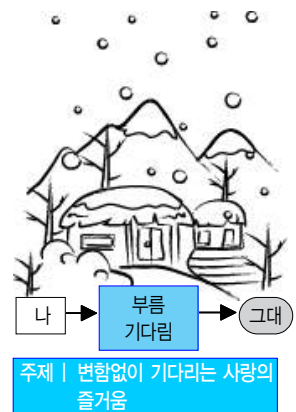
03 시적 상황과 관련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 I >과 유사한 것은?

- ① 임의 말씀 절반은
맑으신 웃음
그 웃음의 절반은
하느님 거 같으셨네
임을 모르고 내가 살았더면
아무 하늘도 안 보였으리

작품명과 작가

즐거운 편지, 황동규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표현상의 특징

1. 편지투의 어조로 내적 고백을 털어놓고 있다.
2. 시적 화자 자신의 행위를 반어적으로 평가하여 시적 긴장감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두 연으로 된 산문시로 사랑하는 이에 대한 변함없는 기다림의 태도를 세월의 순환이 계속되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사소하다고 자칭하는 표현에서 겸손한 우리말 어법의 매력을 엿볼 수 있다.

- ②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와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 ③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 ④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온다.
- 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거운 비(碑)스돌을 세우지 말라.
나의 무덤 주위에서 그 노오란 해바라기를 심어 달라.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시적 화자는 '내 그대를 생각함은 ~ 사소한 일일 것이나'라든지,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을 생각하거나 부르는 일은 나로서는 뜨거운 정성과 열정을 다하는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소함이란 표현은 본래 의도와는 상반된 의미이다. 따라서 반어적인 표현이다. ②는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으나 임이 어느 날 찾아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찾으시는 날 그때까지 못잊어 하고 있겠다는 것은 결국 잊지 못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역시 반어적 표현이다.

● **오답 비루기** ①은 가정법을 통하여 임의 절대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③은 종소리와 자신을 동시사(의인화)하여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④는 자신·자신의 백골의 대립을 통하여 절대적·도덕적 이상의 추구를 염원하고 있으며 ⑤는 명령법을 통하여 자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예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열없이 붙어 서서 입김을 흐리우니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거나,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04 ㉠과 같은 표현 방법을 구사한 예가 아닌 것은?

- | | |
|--|---|
|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
| ③ 이제 봄날은 가고
황홀한 재앙의 시간도
오래지 않으리 | ④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
| ⑤ 사람들은
그리움을 가득 담은 편지 위에
애정의 편을 꽃고 돌아들 간다 |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인 모순 형용(역설)을 발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외로운’과 ‘황홀한’이 심사를 꾸미고 있는데, 외로우면 황홀할 수 없고 황홀하면 외로울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심리이므로 언어 자체가 모순된 형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모순 형용(역설)이다. ⑤에서는 애정의 편이라는 구절에서 은유법만 사용되었다

● **오답 비루기** ①의 ‘찬란한 슬픔의 봄’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②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③ ‘황홀한 재앙’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외로운 눈부심’이란 구절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⑤

작품명과 작가

유리창1, 정지용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식을 잃은 애절한 마음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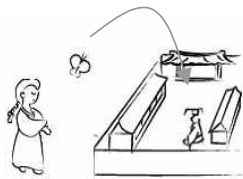
1.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대상의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의 구절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서를 동시에 제시함(감정의 대위법)으로써 감정을 절제한 느낌을 자아낸다.
4. 호흡을 점점 길게 하는 점층적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해제** 이 시는 유리창에 비치는 죽은 자식의 영상을 산새와 별로 상징하여 드러내면서 애끓는 마음을 ‘차고 슬픈, 외로운 황홀한’ 등 대립적 언어를 병치하여 오히려 차다고 느낄 만큼 차분하게 그리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사미인곡, 정철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주제 | 죽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임에 대한 사랑

표현상의 특징

-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울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 적절한 비유로 시적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4음보의 울격을 반복하여 강한 울격미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제시된 시가는 사미인곡의 결사 부분으로 임에 대한 축원과 잠 못 이루는 사랑, 죽어 나비가 되어서라도 임을 좇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여성적 화자의 목소리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물론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 임은 임금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야 백설(白雪)이 흰 비친 제 사름은쿠니와 늘새도 굶쳐 있다. 소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玉樓)* 고쳐(高處)야 더욱 늘너므슴 흐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덕 쏘이고져, 모첨(茅簷)* 비친 히를 옥누의 올리고져. 홍상(紅裳)을 니미치고 취슈(翠袖)*를 반만 거더, 일모(日暮) 슈득(脩竹)*의 험가림도 하도 할샤, 님의 히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청등(靑燈) 거른 것틱 던공후(鈿箜篌)* 노하 두고, 꿈의나 님을 보려 틱 밧고 비겨시니, 양금(鴛鴦)도 찻도 출샤 이 밤은 언제 셀고.

하루도 열두 새 흰 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싱각 마라. 이 시름 님자 하니, 므음의 므쳐 이셔 골슈(骨髓)의 켜터시니, 편작(扁鵲)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 흐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비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덕 족족 안니다가, 향므든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쳐려 호노라.

-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에서

* 소상 남반(瀟湘南畔) : 소상강 남쪽

* 옥누(玉樓) : 옥황 상제가 있는 곳

* 모첨(茅簷) : 초가집 처마

* 취슈(翠袖) : 푸른 소매

* 슈득(脩竹) : 긴 대나무

* 던공후(鈿箜篌) : 자개 장식을 한 공후

05 <보기>의 시조는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대상을 뒷글에서 찾으시오?

| 보기 |

冬至(동지)스들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 내여
春風(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① 옥누(玉樓)

② 양춘(陽春)

③ 홍상(紅裳)

④ 양금(鴛鴦)

⑤ 골슈(骨髓)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표현과 표현 기법상 유사한 표현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 정답 찾기 <보기>에서는 추상적 의미인 밤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베어내고 이불 아래 보관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서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겨신 덕 쏘이고져'라는 표현은 따뜻한 봄을 구체적 사물화시켜 부쳐 내고 임 계신 데 쏘고자 하는 등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배리기 ① 옥누의 원관념은 궁궐이므로 은유법이다. ③은 '붉은 치마'이므로 사실적 표현이다. ④는 원양 금침의 준말로 원양은 금슬이 좋다는 관습적 상징이며 금침은 베개와 이부자리이므로 사실적 표현이어서 주관적 변용은

드러나지 않았다. ⑤는 뻗속이라는 말이므로 시름이 뻗속에까지 끼쳐 있다는 표현이므로 과장법이다.

✓ 해답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涅槃)에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하네.

* 사라수 : 상록수의 일종

*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 : 부처님이 산다는 장엄한 세계

06 위 시와 표현의 방법이 유사한 것은?

- ①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 ② 물결은 어디로 흘러가기에
아름다운 목숨을 싣고 갔느냐
-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 ④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 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 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우선 제시된 시에는 ‘옛날과 지금’, ‘석가모니불과 그 같은 자’, ‘열반과 연화계관장’, ‘들었는데와 들어가려 하네’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하늘과 땅’, ‘구름과 바람’ 등이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 오답 바꾸기 ①에서는 ‘바람이 고난, 어려움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②는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④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⑤에서는 당신이 ‘조국, 불법(佛法), 연인’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면 상징법이 사용되었다.

✓ 해답 ③

작품명과 작가

삼국유사, 일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연화장계관에 들어가기로 빚

주제 | 죽은 자에 대한 축원

표현상의 특징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한시의 한 특징인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적 효과를 살리면서 죽은 이가 부처의 세계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가길,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가마귀 = 감정 이입

기러기 = 선망의 대상

주제 | 나그네의 비애와 정한

표현상의 특징

- 3음보를 구사하여 강한 율격미를 드러낸다.
- 기러기에 말하는 형식으로 대화 존재의 부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아 다녀야 하는 비애를 자연물에 기대어 잘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길

- 김소월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왈가왈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깥깥대면서
 일렬 이렬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깥깥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 앉는다.

01 (가)와 (나)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새로운 세계에, (나)의 화자는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다.
- ② (가)의 화자는 길을, (나)의 화자는 애국가를 통해 적극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다.
- ③ (가)의 화자는 냉소적 어조로, (나)의 화자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애상적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④ (가)의 화자는 떠돌아다니는 자신의 처지를 통해, (나)의 화자는 사회적 현실을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
- ⑤ (가)의 화자는 기러기를, (나)의 화자는 흰 새떼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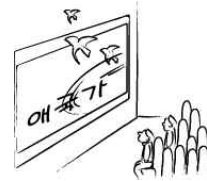
| 보기 |

김소월에게서 ‘암’과의 ‘이별’은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것으로, 그 이별의 상태가 극복될 가능성은 거의 주어 지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소월의 시에서는 억누를 길 없는 비애와 절망을 안으로 삭이는 한의 정서가 강조된다.

작품명과 작가

④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반어 : 시대 상황 비판)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암울한 시대적 상황 반영)

주제 | 암울한 현실적 삶에 대한 좌절감

표현상의 특징

1. 현실을 죽음과 절망, 초월해 보고 싶은 환멸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 자유로운 새들과 시적 화자 자신의 처지를 대조해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3.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4.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 등의 표현에서 반어법을 구사하여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현실적으로 보고, 듣고, 느낀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토로하면서 피곤하고 역겨운 현실을 탈피한 좀 더 바람직하고 인간다운 삶에 대한 희구를 표출하고 있는 작품이다.

- ① 임과 같은 ‘내 집’을 떠나 유랑하는 비애를 노래하고 있군.
- ② 임과 같은 ‘내 집’은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군.
- ③ ‘산’은 ‘내 집’으로 못 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해.
- ④ ‘정주광산’은 이별한 대상이 되는군.
- ⑤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란 표현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시적 화자의 딱한 처지를 대조적으로 드러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목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란 표현에는 암울한 시대 상황이 암시되어 있다.
- ② 전체적으로 된소리로 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 ③ 2행의 ‘경청한다’란 표현은 강요된 애국심에 대한 반어적 표현이다.
- ④ 10행의 ‘이 세상 밖’은 또 다른 환멸의 공간을 의미한다.
- ⑤ 17행과 18행의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현실 순응을 강요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1]

01 ⑤ 02 ③ 03 ④

01 ⑤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자유롭게 날고 있는 기러기를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는 흰 새떼들을 제시하여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또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나)에서는 '주저앉는다'란 구절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오답 배리기 ① (가)는 집을 내세워 고향 즉 과거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이 세상 밖 즉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② (가)는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절망감을 표현하고 있고 (나)는 애국가를 들으며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 현실 도피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애상적 어조, (나)는 냉소적인 어조를 드러낸다. ④ (나), (나) 둘 다 삶의 무상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02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구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는 갈 곳 모르는 심정의 표현이지 산 자체가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배리기 ① 시적 화자는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하며 유랑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 적절하다. ②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는 구절에서 보듯 정주곽 산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④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라는 표현에서 보듯 정주곽산은 이별한 대상이다. ⑤ 차와 배는 갈 수 있는 곳으로 표현하여 유독 시적 화자만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를 잘 드러낸다.

03 ④

● 문항 분석 시구의 표현 기법이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이 세상 밖은 시적 화자가 이 세상이 싫어 떠나고자 하는 지향점이므로 이상향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 오답 배리기 ① 제목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해야 하는 세상을 새들도 싫어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암울한 시대상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대면서',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깔깔대면서 깔쭉대면서' 등의 구절에 된소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데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 ③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해야 하는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경청한다'는 듣기 싫어도 마지못해 듣는다는 의미의 반어적 표현이다. ⑤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창해야 하는 부정적인 세상에서 '대한 사람 대만으로 길이 보전하세'란 표현은 억지 애국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가) 길, 김소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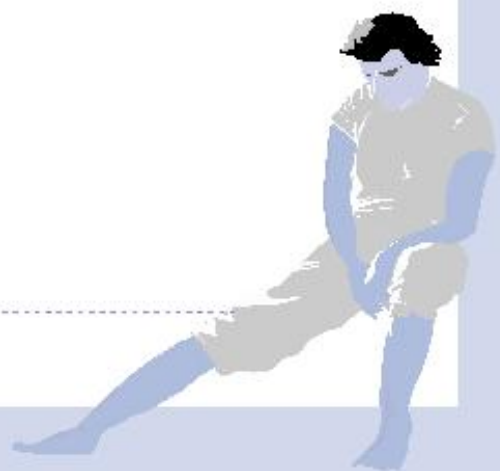
시적 화자의 처지는 ‘나그네 집’이란 시어에 명백히 드러난다. 어디론가 여행이나 혹은 유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가 ‘울며 새었다’면 시적 화자도 밤새워 들었을 게다. 잠 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었을 터니. 그렇구나. 떠도는 나그네가 무슨 근심에선가 밤새 슬퍼 잠 못 이루었다는 얘기다. 왜 그랬을까? 해답은 ‘말마소 내 집도 정주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란 표현에 있다. 고향을 떠나온 상황이다. ‘차 가고 배 가는’ 고향을 두고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라고 말하는 것은 옛가요에 나오는 ‘고향을 두고도 못 가는 신세’에 처한 자신의 딱한 상황 때문이라.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일까 아니면 사회적 사정일까? 약간의 배경 지식만 동원해 본다면 일제 강점기하의 지독한 수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이 간다. 공중의 저 기러기를 불러대는 것은 새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는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고 또한 대화 상대의 부재를 나타내 고독의 쓰라림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영화를 보러 간 사람의 목표는 오락이다.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이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란 말을 듣는다면 기절할 노릇이라. 반어의 섬뜩한 묘미를 활용해 강요된 의식에 대한 비판의 장을 열고 있다. ‘삼천리 화려 강산’도 당시의 현실으로 봐서는 반어적이며 대유적 표현이다. 화면에는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깃털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어진다. 절망 속에서는 새들의 비상도 절망적으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깃털대면서 갈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라는 가사로 애국가는 끝이 나고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그것도 ‘주저 앉는다’. 절망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꽃을 위한 서시

-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危險)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존재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무명(無名)의 어둠에
추억(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塔)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금(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

나

폭포

- 이형기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질주하는 전율과
전율 끝에 단말마를 꿈꾸는
벼랑의 직립(直立)
그 위에 벼랑은 다시 솟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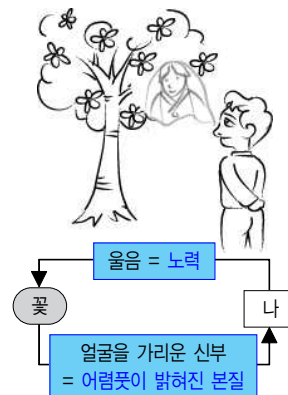
그대는 아는가
석탄기(石炭紀)의 종말을
그 때 하늘을 높이 날으던
한 마리 장수잠자리의 추락(墜落)을

①나의 자라는 자멸(自滅)이다.
무수한 복안(複眼)들이

자품명과 작가

②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존재의 본질 인식에의 염원

표현상의 특징

1. 시적 대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긴장감을 유지시키고 있다.
2.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화자가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고자 하는 소망을 읊은 작품이다.

자품명과 작가

④폭포, 이형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폭포를 통하여 느끼는 일상적 삶의 존재론적 비극적 상황에 대한 인식

요 표현상의 특징

1. 폭포를 의인화하여 그 철학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2. 역설적인 표현으로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폭포의 이미지를 관념화하여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한계와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철학적인 작품이다.

그 무수한 수정체(水晶體)가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盲目)의 눈보라

그대는 아는가
나의 등판에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빗줄기
2억 년 묵은 이 칼자욱을 아는가.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 (나)의 화자는 직접 시적 대상이 된 것으로 상상하여 시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소망을 이룬 기쁨을, (나)의 화자는 소망을 못 이룬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자신에 대한, (나)의 화자는 파괴된 자연에 대한 연민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추억 속의 시적 대상에 대하여, (나)의 화자는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적 대상에 대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과거의 상황을, (나)의 화자는 현재 상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02 (가)에서 발상을 얻어 다음 <보기>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할 때,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적인 태도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오렌지 - 신동집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살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푹푹
배암의 포아리를 틀고 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작품명과 작가

오렌지, 신동집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사물로서의 오렌지와 관계 설정

접근 가능한 존재로서의 오렌지

파괴할 수 없는 본질로서의 오렌지

오렌지의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

오렌지의 본질의 추구 가능성

주제 | 존재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에 대한 추구

표현상의 특징

-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 사물로 표현하여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 '포들한, 찹살한' 등의 시적 자유에 의한 표현으로 중심 대상의 속성을 표현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오렌지라는 소재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던져 그 본질을 이해할 가능성만 포착하고 있는 작품이다.

-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대상에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대상의 외양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대상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 대상에 의지해 현실적 고통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발상 및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껌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 껌데기는 가라, 신동엽
- ②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어려했건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쫓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 바라춤, 신석초
- ③ 산비탈 난지시 타고 내려오면 /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길 쫓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 ④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 떨어진다. - 폭포, 김수영
- ⑤ 네가 지금 간다면, 어디를 간단 말이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
너,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
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
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나? - 네거리의 순이, 임화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2]

01 ① 02 ④ 03 ④

01 ①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꽃을 '너'로 의인화시키고 있고 (나)는 폭포를 '나'로 하여 직접 시상을 펼쳐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라는 구절로 볼 때 꽃의 정체를 알아내려 하였으나 정확하게는 알아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망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없다. (나)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③ (가)에서 울음은 금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노력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파악해야 하지 연민의 울음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나)는 파괴된 자연과는 관련이 없다. ④ (가)는 시방이라는 시어로 볼 때 현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나)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둘 다 회의적으로 보는 태도를 드러내지 않는다.

02 ④

● 문항 분석 두 시의 시적 화자의 공통된 태도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얼굴을 가리운 나의 신부(新婦)여'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보기>는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같은 아직 몰라도'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⑤ 두 시 모두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③ 주관적 묘사는 부분적으로 드러나나 객관적 묘사는 없다.

03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의 표현 기법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기법으로 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나의 자량은 자멸이다'라는 표현은 자멸이 자량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량이라고 한 표현이다. 그러나 대상이 폭포임을 고려하면 떨어지는 것이 존재 가치가 된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나 그대로 진리를 드러내는 역설이다. ④의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는 표현도 역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대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

⑤ 둘 다 특별한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가) 꽃을 위한 서시, 김춘수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라는 말에 우린 깜작 놀랄 수밖에 없는데 너 또한 대명사여서 궁금정은 증폭된다. 시적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가지’와 ‘피었다 진다’란 말에서 우리는 너를 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손이 닿으면’은 꽃을 꺾는 행위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름이 없다’란 말은 인식의 부재를 나타낸다. 그래서 ‘무명의 어둠’도 곧 무지의 의미로 쉽게 환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둠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라. 그래서 ‘추억의 한 접시 불’도 노력이란 의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다. 그러한 노력은 울음으로 시작하여 돌개바람과 ‘금(金)’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금은 가치 있는 것의 의미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곧 꽃을 얼굴을 가리운 신부로 인식하게 된 것은 어렵잖게나마 윤곽을 파악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 베일을 벗겨야 하는 과제는 남은 터다.

(나) 폭포, 이형기



이 시에서 ‘나’는 산이 아닌가란 위험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것은 제목을 무시한 결과에 불과하다. ‘나의 등판을 어깨에서 허리까지 길게 내리친 시퍼런 칼자욱을 아는가’ 하며 고함지을 수 있는 화자란 바로 폭포이다. 산은 등장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주 속에 부르르 떨고 마침내 단말마 비명을 지르며 떨어지는 물줄기에겐 벼랑은 벼랑으로 이어질 것이다.

장수잠자리의 추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폭포의 비유로 풀 수밖에 없는 의미이다. 마지막에 나오는 2 억 년 묵은 이 칼자욱과 석탄기의 종말이 짝을 이루어 폭포의 의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객관성을 얻는다.

‘나의 자라는 자멸이다’란 구절에서 우린 역설을 읽어 낼 수 있다. 자멸은 자량이 될 수 없다는 논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어차피 떨어져야 한다면, 자발적으로 떨어지자고 하는 것은 ‘갈테면 우리가 가자. 끌려 가지 말고!’란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의 한 구절과도 뜻이 통한다. 복안은 잠자리의 눈처럼 여러 개의 눈이 하나의 눈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도 장수잠자리란 폭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곧 복안은 여러 개의 물방울이며, 그 무수한 수정체이며, 한꺼번에 박살나는 맹목의 눈보라이기 때문이다.

‘나의 등판을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퍼런 빛줄기’는 물줄기 즉 좁은 의미의 폭포를 빛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넓은 의미의 폭포는 벼랑과 물줄기로 볼 수 있고 좁은 의미의 폭포는 물줄기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옳음을 입증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승무(僧舞)

- 조지훈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梧桐)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보선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장(合掌)인 양하고

이 밤사 귀뜨리도 지새우는 삼경(三更)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나

국화 옆에서

-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작품명과 작가

㉡승무, 조지훈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3연 춤추기 전의 모습

기

4~8연 배경과 춤추는 모습

서

9연 춤의 종료

결

주제 | 인간 번뇌의 종교적 승화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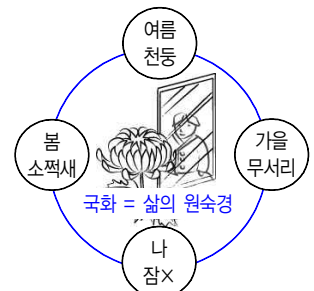
1. '고깔, 머리, 볼', '소매, 외씨보선', '눈동자, 뺨, 손' 등 위에서 아래로 묘사하는 것을 반복하여 너울너울 춤을 추는 올동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 외부 묘사에 치중하고 갈등은 암시적으로 드러낸 후 '별빛' 등의 이미지를 통해 내적 정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 불교적인 시어와 '오/우'가 들어 가는 예스러운 말투를 사용하여 우아한 맛을 살리고 있다.
4.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안정감, 통일감, 균형미를 구현하고 있다.
5. 유음 '르'를 많이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해제 이 시는 인간적 번뇌를 별빛처럼 맑게 승화시켜 선적(禪的)인 정취와 분위기를 멋지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온갖 고뇌와 시련을 거쳐 도달한 생의 원숙한 경지

요 표현상의 특징

1. 민요조의 3음보를 반복하여 친근한 율격미를 형성하고 있다.
2.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가 형성되기까지의 비통과 불안과 방황과 온갖 시련을 국화가 피어나는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01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사람에 대한, (나)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는 시적 대상이, (나)는 화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사람을 통해, (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삶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나)는 부정적인 과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는 어두운 공간에서 나타난 자연 현상에 대하여, (나)는 밝은 공간에서 나타난 사람에 대하여 관찰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02 (가) 시를 <보기>의 관점에서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작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작품 속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면서 문학 작품을 고도의 형상적 언어로 조직된 자율적인 체계로 본다.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작가나 시대, 환경으로부터 독립시켜 이해하며, 언어 표현의 방식과 작품의 내적인 짜임새를 중시한다.

- ① 춤의 동작과 대상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를 확인할 수 있어.
- ② 지상적 이미지와 천상적 이미지를 대립적으로 배치한 느낌이 들어.
- ③ 문법적으로는 잘못되었지만 시적 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어휘들이 있어.
- ④ 우아하고 예스러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 ⑤ 갈등의 종교적 해결을 나타낸 것은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03 (나)에 대한 구체적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어구를 반복해 율격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국화꽃’과 세 계절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거울’은 객관적 사실을 투영해 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
- ④ ‘잠’이란 시어를 제시하여 화자와 시적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소쩍새 소리나 천둥 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

표언기법 Theme Question

04 ㉠와 같은 표현 기법이 사용된 것은?

- ① 오호, 흰 눈이 내리느니, 보오얀 흰 눈이
북새(北塞)로 가는 이사꾼 짐짝 위에
말없이 함박눈이 잘도 내리느니 - 눈이 내리느니, 김동환
- ② 진중일 헛되이 나의 마음은
공중의 깃발처럼 울고만 있나니.
오오, 너는 어드메 꽃같이 숨었느냐. - 그리움, 유치환
- ③ 아 내가 모르는 것을, / 내가 모르는 그 절망(絶望)은
비로소 무엇인가 깨닫는 심정이
왜 이처럼 가볍고 서글픈가. - 들길, 이형기
- ④ 매끄러운 무우를 혀끝으로 더듬으며 / 이빨로 사정없이 물어뜯으며
마을을 가리던 키 큰 그림자 / 세상을 덮어버릴 때까지
나는 새파랗게 웃고 있다. - 일식, 이경교
- 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망한 / 이 황무한 전장에서
이름도 모를 꽃 한 송이 / 뉘의 위축으로 피어났기에
상냥함을 발돋움하여 하늘과 맞섬이노. - 꽃, 박양균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3]

01 ③ 02 ⑤ 03 ③ 04 ③

01 ③

● 문항 분석 두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의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에서 인간적 고뇌를 극복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또한 (나)의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라는 구절에 삶의 고뇌를 이겨냈다는 시적 의미가 담겨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가)에 승 즉 스님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내용은 없다. ② (나)는 자연물인 국화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어 화자의 현실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④ (가), (나) 모두 비판적 태도를 표현한 내용이 없다. ⑤ (가)는 사람을 (나)는 꽃을 노래하고 있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관점으로 비평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보기>는 작품 감상의 여러 관점 가운데 '내재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는 작품의 감상에서 작가와 현실, 독자의 측면보다는 작품 자체를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시에서 '복사꽃 고운 뺨에 ~ 별빛이다'에서 갈등의 종교적 승화라는 주제 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작가의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작가를 중시하고, 작품의 외재적 관점인 '표현적론 관점'에서 감상한 것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시의 구성 방식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② 제시된 시어 '세사와 별빛'의 대응 관계를 밝히고 있으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③ '이 밤사 귀뚜라, 하이얀, 나빌레라' 등등의 시적 허용과 관련된 감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④ 직접적으로 시어와 관련된 감상이므로 내재적 관점이다.

03 ③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라는 표현으로 보아 거울은

'회상과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 오답 바꾸기 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와 '울었나 보다'가 반복되고 있다. ②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 천둥, 무서리 등이 연관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을 의미한다. ④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소쩍새나 천둥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렇게'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어 적절하다.

04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에 사용된 표현 기법을 알아내고 이와 같은 기법이 사용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세사(世事)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라는 구절에서 번뇌는 고통스러운 것인데 별빛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모순된 표현이다. 그러나 번뇌 속에서 구원의 빛이 찾아질 수 있다는 의미가 성립된다. 따라서 겉보기에 모순되어 보이나 그대로 진리를 담고 있는 역설적 표현이다. ③에서 '가볍고 서글픈가'라는 표현도 역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영탄법과 반복법. ② 직유법, 영탄법, 의인법. ④ 특정 표현 기법이 없다. ⑤ 의인법.

(가) 승무, 조지훈



고깔의 모양을 한 마리 나비로 비유해 본 시적 화자의 시선은 고깔 속의 머리와 두 볼의 순으로 하강한다. ‘고와서 서러워라’는 역설적 표현이다. 다시 시선은 배경으로 옮겨가며 ‘오동 앞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란 참신한 표현을 만들어낸다. 펼치는 소매의 끝자락이 하늘에 닿을 듯한 모습과 정중동의 발동작을 연상해 보자.

까만 눈동자에 까만 하늘 그리고 빛나는 별, 복사꽃 고운 뺨에서는 젊은 여승의 번뇌가 묻어날 듯도 한데 ‘번뇌는 별빛이라’며 이를 단호히 부정하고 있다. 시간적 배경을 제시한 후 수미상관적 구성으로 첫연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율격과 안정감을 조율해 시를 끝맺고 있다.

(나) 국화 옆에서, 서정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다는 것이 정말일까? 이런 의문으로 시를 해석하면 전부 거짓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진술이 참이 되는 것은 시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울었다는 데 어떻게 온 것일까? 이것은 좋은 의문이다. 앞에서 밝히지 않은 내용을 지시어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의 모미는 이런 점에서도 살아난다. 다시 ‘그렇게’는 어떻게? 독자의 상상적 참여가 가능해진다. 독자가 들은 소쩍새의 울음소리를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름에는 천둥이 울고, 가을에는 무서리가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니 계절과 자연과 인간이 다 인연을 맺고 발생한다는 불교의 연기설(緣起說)이 성립된다. 그러한 연기설은 화자의 인식에 의한 것이므로 시적 참이 되는 셈이다.

제3연은 다른 연과 달리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라며 대상 자체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연이다. 누님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편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으로 인생의 걱정을 다 겪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원숙한 모습의 여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부가(漁夫歌)

- 이현보

이 등에 시름 업스니 어부(漁夫)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젯거니 놀 가는 줄로 안가.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ㄴ렛느고

㉢강호에 월백(月白)흐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애라.

청하(靑荷)에 바블 싸고 녹류(綠柳)에 고기 껴여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빅 먹야 두고

㉤일반 청의미(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라실고

산두(山頭)에 한운(閒雲)이 기(起)하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驢)이 비(飛)이라.
무심코 다정(多情)하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믈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장안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

두어라 내 시름 안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랴.

작품명과 작가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자연을 벗하는 풍류 생활

요 표현상의 특징

- 1 대구법을 사용하여 의미의 율격을 형성시키고 있다.
- 2 설의법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3 대립적 이미지를 대조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해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유유 자적하며 사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장된 표현으로, 현실적 절망을 확대시키고 있다.
- ②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과거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으로, 잘못된 사회상을 꼬집어 공격하고 있다.
- ④ 대조의 기법으로, 소망하는 삶의 양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⑤ 구체적 묘사를 통해, 지향하는 고향의 모습을 뚜렷이 그려내고 있다.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일엽편주(一葉扁舟)'라는 시어를 통해 어부의 일상적이고 소박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달이 밝다는 뜻의 시어 '월백(月白)'을 통해 화자가 욕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맑고 깨끗한 삶이란 의미의 시어 '청의미(淸意味)'를 통해 화자의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백색 이미지의 시어 '백구(白駒)'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삶에의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은 북쪽에 있는 대궐이라는 뜻의 시어 '북궐(北闕)'을 통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표출하고 있다.

03 다음 밑줄 친 시어 중 ㉡의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날마다 강가에서 고기 낚는데
 낚시 무는 놈은 모두 잔챙이.
 누가 알까, 저 푸른 바닷물 속에
 배보다 더 큰 고기 있음을. - 김류
- ② 호미 메고 꽃 속에 들어가
 김을 매고 저물녘에 돌아오네.
맑은 물이 발 씻기에 참 좋으니
 샘이 숲속 돌틈에서 솟아나오네. - 강희맹
- ③ 봄 비 가늘어 방울 없더니
 밤 되자 빗소리 귀에 들리네.
 눈 녹아 시냇물 불어날 테고
 파릇파릇 풀 싹도 돌아날 거야. - 정몽주
- ④ 동남으로 저 멀리 푸른 바다 바라보니
 아침 안개 사라지고 붉은 해 일렁이네.
 위아래가 어슴푸레 같은 색이 되었으니
 모르겠네.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가. - 이승소
- ⑤ 첩첩 바위 사이를 미친 듯 달려 겹겹 봉우리를 올리니,
 지척에서 하는 말소리도 분간키 어려워라.
 늘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세라,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 최치원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4]

01 ④ 02 ④ 03 ⑤

01 ④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구버는 천심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제나 ㄹ렛느고'라는 구절에서 자연과 속세를 대조시켜 자연에 귀의하는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일생(一生)에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라는 구절에 과장법을 구사하였으나 현실적 절망을 표현한 구절은 없다. ② 자문자답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③ 잘못된 사회상에 대한 표현은 없다. ⑤ 고향과 관련된 표현은 없다.

02 ④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백구(白駒)'는 흰 갈매기란 뜻인데 한운 즉 구름과 동격으로 자연을 나타내면서 무심코 다정한 대상이 되어 순결한 삶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일엽편주(一葉扁舟)'는 조그만 조각배란 뜻으로 소박한 삶을 드러내며 어부의 일상생활을 표현한다. ② '월백(月白)'은 '무심(無心)하애라'라는 구절과 관련되면서 욕심을 버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③ '청의미(淸意味)'는 '어늬 부니 아라실고'라는 구절 즉 '그 누가 알리'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자부심을 드러내는 구실을 한다. ⑤ '북궐(北闕)'은 '어주(漁舟)에 누어신달 니즌 스치 이시랴'라는 구절 즉 '고깃배에 누워있는들 잊은 적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와 관련되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떠올리게 하는 구실을 한다.

03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은 '십장홍진(十丈紅塵)' 즉 속세와 격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에서 '늘 시비하는 소리'라는 말도 속세를 의미하며 흐르는 물은 속세의 소리를 막아주는 구실을 한다.

● 오답 바꾸기 ① 큰 세상을 비유한다. ② 자연의 대유이다. ③ 봄 정경을 의미한다. ④ 하늘과 같은 바다 빛깔을 의미한다.

어부가(漁夫歌), 이현보



전문 현대어역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다만 ‘나의 걱정이 아난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라는 구절을 다소 반어적인 표현으로 보아 나랏일에 대한 일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전문 현대어역〉

이 중에 근심 걱정할 것 없으니 어부의 생활이로다.
조그마한 쪽배를 끝없이 넓은 바다 위에 띄워 두고
인간 세사를 잊었거니 세월 가는 줄을 알라.

-자연과 합일된 경지

아래로 굽어보니 천 길이나 되는 깊고 푸른 물이며, 돌아보니 겹겹이 쌓인 푸른 산이로다.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는 얼마나 가려 있는가.
강호에 밝은 달이 비치니 더욱 무심하구나.

-무욕의 강촌 생활

푸른 연잎에다 밥을 싸고 푸른 버들가지에 잡은 물고기를 꿰어,
갈대꽃이 우거진 떨기에 배를 매어두니,
이런 일상적인 맑은 재미를 어느 사람이 알 것인가.

-강호에서의 맑은 재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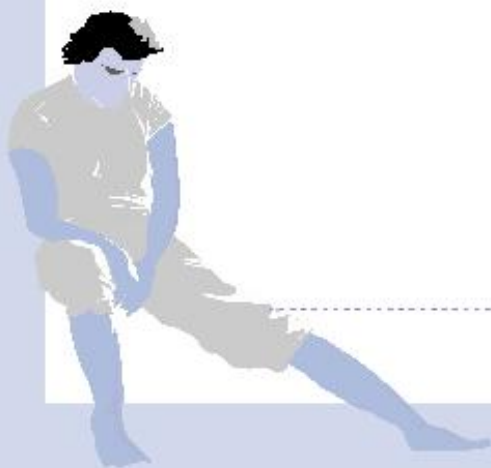
산머리에는 한가로운 구름이 일고 물 위에는 갈매기가 날고 있네.
아무런 사심 없이 다정한 것으로는 이 두 가지뿐이로다.
한평생의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너희들과 더불어 놀리라.

-강호에서의 한가로운 정

멀리 서울을 돌아보니 경복궁이 천 리로구나.
고깃배에 누워 있은들 (나랏일을) 잊을 새가 있으랴.
두어라, 나의 걱정이 아난들 세상을 건져낼 위인이 없겠느냐?

-세속을 초월한 강촌 생활

시 해석력 풀이



❏ **작품명과 작가**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1행 비판 대상 인물의 제시

2~5행 개똥이의 처신 개관

6~끝 행 개똥이의 비도덕적 행위 묘사

주제 | 도덕적 타락에 대한 비난과 경계

요 표현상의 특징

1. 대구와 4음보로 강한 율격을 드러낸다.
2. 시적 대상에 대해 비난하는 태도를 강하게 드러낸다.
3. 인물의 행동을 다소 과장하여 해학미를 드러낸다.

해제 이 작품은 양반 사회가 당면했던 경제적 몰락과 도덕적 타락을 가차 없이 그려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부가(愚夫歌)

- 작가 미상

내 말씀 광언*인가 저 화상 구경하게.
 남촌한량* 개똥이는 부모덕에 편히 놓고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랑없이 주체넘어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졌다.
 장장춘일 낮잠자기 조석으로 반찬 투정
 매 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놀이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첩 치가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 조방꾸니* 안방에는 노구할미*
 명조상을 떠세하고* 세도 구멍 기웃기웃
 염량* 보아 진봉*하기 재업을 까불리고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다.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할 때는 후하여서 ㉣
 승기자*를 염지하니* 반복소인* 허기진다.
 내 몸에 이할 대로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는 불목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키와
 주색잡기 모두 하여 돈주정을 무진하네.
 부모조상 도망하여* 계집 자식 재물 수탐
 일가 친척 구박하며
 ㉥내 인사는 나중이요 남의 흥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
 날 데 없는 용전여수* 상하탱석* 하여 가니
 손님은 채객*이요 윤의*는 내 몰라라.

* 광언 : 미친소리.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 조방꾸니 : 바람피우는 것을 돕는 사람 .

* 명조상 : 이름난 조상.

* 염량 : 더위와 추위.

* 승기자 : 자기보다 나은 사람.

* 반복 소인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짓대 없는 사람.

* 경계판 : 관의 바탕면.

* 한량 : 무위도식하는 사람.

* 시체 : 철에 따라.

* 노구할미 : 뚜쟁이 노릇을 하는 노파.

* 떠세하고 : 젠 채하고 억지를 쓰고.

* 진봉 : 권문세가에 뇌물을 갖다 바침.

* 염지하니 : 싫어하니.

* 도망하여 : 완전히 잊고.

* 용전여수 : 돈을 물처럼 흔하게 씀.

* 상하탱석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임시변통.

* 채객 : 빗쟁이.

* 윤의 : 윤리와 의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의적인 표현으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부정한 사회상을 고발하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으로, 대상의 행위를 비꼬아 공격하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⑤ 대화체를 활용하여, 잘못된 대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용구를 활용하여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드러낸다.
- ② ㉡ : 대구를 활용하여 유사한 행동을 드러낸다.
- ③ ㉢ : 과장을 활용하여 부지런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 ④ ㉣ : 대조를 활용하여 도리에 어긋남을 드러낸다.
- ⑤ ㉤ : 대조를 활용하여 예의가 없음을 드러낸다.

03 시상 전개상 ㉠에 들어갈 시구는?

- ① 수백냥이 헛것이다.
- ② 울타리가 떨나무다.
- ③ 원망하는 소리로다.
- ④ 사람마다 도적이라.
- ⑤ 입구멍이 제일이라.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5]

01 ③ 02 ③ 03 ①

01 ③

● 문항 분석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대부분의 구절에서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을 짚어지고 /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이라.'라는 구절에서 풍자의 기법이 잘 드러나며 이는 대상을 비꼬아 공격하는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중의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② 반어법을 구사하지 않았다. ④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대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표현은 없다.

02 ③

● 문항 분석 시구의 의미와 표현 기법과 그 구실 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허욕으로 장사하기 남의 빛이 태산이다.'라는 구절에서 과장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부지런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많음을 나타낸다.

● 오답 비루기 ① 눈이 높고 손이 크다는 관용구이고 '가량없이 주제넘어'라는 구절은 분수가 없다란 뜻이다. ② '이리 모여 노름놀이'와 '저리 모여 투전질'은 유사한 의미이다. ④ 일가를 먼저 아껴야 하는 도리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⑤ 내 인사가 먼저라는 예절에 어긋남을 의미한다.

03 ①

● 문항 분석 생략된 시구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의 앞 구절은 '후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이어진 구절은 '박할 때는 후하여서'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대조적 대구가 되므로 ㉠에도 대조적 대구의 형태가 되는 ㉠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③, ④, ⑤ 모두 대조적 대구의 구조를 이루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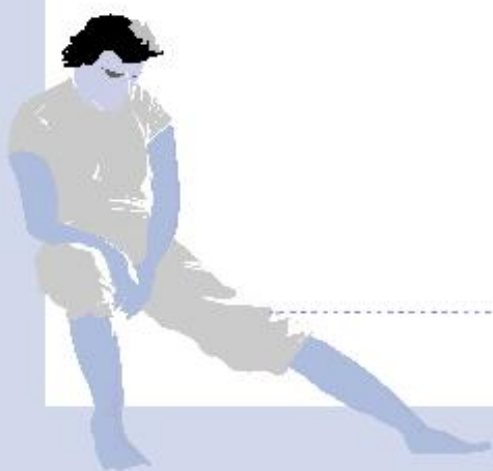
우부가(愚夫歌), 작가 미상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로 시작된 이 가사는 개똥이의 행적을 가차 없이 서술해 나간다. ‘저 인간’이란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인간 같지 않은 행적을 다소 과장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교훈과 더불어 웃음과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현대어역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전문 현대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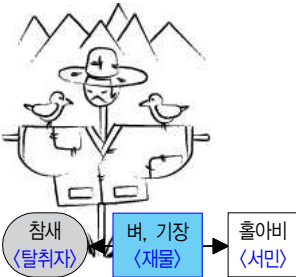
내 말이 미친 소리인가 저 인간을 구경하게. 남촌의 한량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하지만 무식하고 미련하여 소견머리가 없는데다가 눈은 높고 손은 커서 대중없이 주재 넘어 유행에 따라 옷을 입어 남의 눈만 즐겁게 한다. 긴긴 봄날에 낮잠이나 자고 아침저녁으로 반찬 투정을 하며, 항상 놀고먹는 팔자로 술집에 무상출입하여 매일 취해서 게트림을 하고, 이리 모여서 노름하기, 저리 모여서 투전질에 기생첩을 얻어 살림을 넉넉히 마련해 주고 오입쟁이 친구로다. 사랑 방에는 조방군, 안방에는 뚜쟁이 할머니가 드나들고, 조상을 팔아 위세를 떨고 세도를 찾아 기웃기 웃하며, 세도를 따라 뇌물을 바치느라고 재산을 날리고, 헛된 욕심으로 장사를 하여 남의 빚이 태산처럼 많다. 자기가 무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어진 사람을 미워하며, 후하게 해야 할 곳에는 야박하여 한 푼을 주는 데도 아까워하고 박하게 해도 되는 곳에는 후덕하여 수백 냥을 낭비한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소인들이 비위 맞추느라 배가 고플 지경이다. 자기에겐 유리하면 남의 잘못된 말도 따지지 않고,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지만 제 친척들과는 화목하지 못하며, 건강 해칠 일은 모두 하고 인삼 녹용으로 몸보신하기와, 주색잡기를 모두 하여 한없이 돈을 함부로 쓰네. 부모와 조상은 아주 잊어버리고 계집 자식과 재물만 좋아하며, 일가친척을 구박하고 자기가 할 도리는 나중 일ियो, 남의 흉만 잡아낸다. 자기 행동은 개차반이면서 경계판을 짚어지고 다니며,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앞장을 선다. 돈이 나을 데가 없는데도 물처럼 쓰고 나서 임시변통하기에 바쁘고, 오는 손님은 모두 빚쟁이이고, 사람의 도리는 모른 체한다.



작품명과 작가

㉠사리화, 이제현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가혹한 수탈로 인한 농민의 피폐한 삶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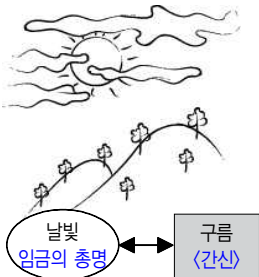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이 시에서 '참새'는 평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상징하고, '늙은 홀아비'는 수탈당하는 힘없고 가난한 농민을 상징한다.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지 못하고 참새에 비유하여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서글픈 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이준오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간신의 횡포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초장의 '구름'은 간신 신돈을 가리키며, 그가 임금의 총애를 받아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방자하게 구는 태도를 중장에서 형상화해 놓고 있다. 마지막 중장의 '광명'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을 비유한 것이고,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신돈의 횡포를 개탄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리화

- 이제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며 나느냐. (黃雀何方來去飛)
일 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一年農事不曾知)
늙은 홀아비 홀로 갈고 땀는데, (鰥翁獨自耕耘了)
밭의 벼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耗盡田中禾黍爲)

나

고시조

- 이준오

㉠구름이 무심(無心)탄 말이 아마도 허랑(虛浪)하다.
중천(中天)에 떠 이서 임의(任意)로 단니면서
구타야 광명(光明)한 날빛을 따라가며 덩나니.

다

고시조

- 신희

넷가의 해오람아* 무스 일* 서 있느냐?
무심한 저 고기를 여어* 무슴하려느냐*
아마도 한 물에 있거니 니저신들 어떠리.

* 해오람아 : 해오라기(백로)야.

* 무스 일 : 무슨 일로.

* 여어 : 엿어, 엿보아서, 노려보아.

* 무슴하려느냐? : 무엇하려느냐?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 ②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⑤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져서 자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02 (가)와 유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 ① 궁한 양반이 시골에 묻혀 있어도 무단(武斷)을 하여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자기 논을 맨들 누가 감히 나를 괘시하랴. - 양반전
- ② 놀고 자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광한루, 오작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춘초(春草)는 연년록(年年綠)하되 왕손(王孫)은 귀불귀(歸不歸)라, 날로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할 제 만세 무량하옵소서, 다시 보긴 망연이라. - 춘향전

- ③ 가난이야 가난이야 만고에 있는 가난. 아무리 헤아려도 내 옷수의 가난은 다시 없네. 아주 좁고 찢어지게 가난하여 도정절의 가난하기도 내 집에 비하면 대궐이요, 삼순구식 십년일관이란 정관문의 가난하기도 내게 대면 부자로다. - 흥부전
- ④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늑은 천년을 묶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늑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 호질
- 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 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 허생전

표현기법 Theme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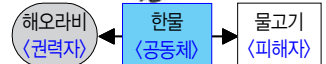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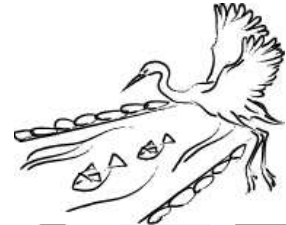
03 다음 밑줄 친 단어가 ㉠의 문맥적 의미와 같은 것은?

- ① 열치매
나타난 달이
흰구름 좇아 떠 가는 것 아니야?
새파란 나리에
耆郎(기랑)의 모습이 있어라. - 찬기파랑가, 충당사
- ② 바람도 쉬여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여 넘는 고기,
산진(山眞)이 수진(水眞)이 해동청(海東靑) 보라미라도 다 쉬여 넘는 고봉(高峰) 장성령 고기.
그 넘어 넘어 왔다 흐면, 나는 아니 흐 번도 쉬여 넘으리라. - 사설 시조, 작가 미상
- ③ 峰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있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밌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할사. - 상춘곡, 정극인
- ④ 가운데 구비는 굵기 든 늘근 농이 선잠을 꾴 썩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 바회 위회 松竹(송죽)을 해혀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든 靑鶴(청학)이 千里(천리)를 가리라 두 노래 버렸는 듯. - 면앙정가, 송순
- ⑤ 日日出출을 보리라 밤둥만 니러하니, 祥雲(상운)이 집피는 동, 六畜(육축)농이 바되는 동, 바다히 셔날 제는 萬萬國(만만국)이 일위더니, 天垠(천연)의 티쓰니 毫호髮발을 헤리로다. 아마도 넬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 관동별곡, 정철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신흘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약육강식의 세태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 현실을 적절하게 상징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공박하지 않고, '넋가의 해오라비'와 '물 속의 고기' 등으로 바꾸어서 풍자하여 뛰어난 작품성을 띠고 있다. 초창의 '해오라비'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중창의 '고기'는 '해오라비'에 대한 희생물로서 약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창의 '한 물'은 '한 나라, 공동체'를 뜻한다. 즉,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습을 꼬집으며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6]

01 ① 02 ① 03 ⑤

01 ①

● 문항 분석 여러 시의 표현상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에서는 가혹한 수탈을 풍자하고 있고 (나)에서는 광명을 가리는 구름을 풍자하고 있다. (다)에서도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적절하다.

● 오답 비루기 ②, ⑤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③, ④ (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02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드러난 상황과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가)는 참새를 관리로, 늙은 홀아비를 평민으로 상징하여 양반의 가혹한 수탈을 풍자하고 있다. ①도 양반의 착취와 횡포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② 고향을 떠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③ 가난을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④ 선비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있다. ⑤ 양반의 비현실성을 풍자하고 있다.

03 ⑤

● 문항 분석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구름의 원형적관습적 상징 의미는 '떠돌, 허망' 등인데 (나)에서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날빛 곧 태양을 구태여 따라가며 덮는 존재 즉, 광명을 가려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이다. 물론 태양을 임금으로 구름을 태양과 같은 임금을 가리는 간신의 의미로 볼 수 있다. ⑤의 널구름도 태양을 가리게 될까봐 시적 화자는 염려하고 있어 그 상징적 의미가 같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높음의 뜻을 지니고 있다. ④ 정자와 그 주변의 형상을 나타내는 보조 관념으로 사용되었다.

(가) 사리화, 이제현



세상사를 자연적인 일에 빗대어 풍자하는 시다. 참새가 탐관오리를 나타낸다면 늙은 홀아비는 가난한 서민, 벼와 기장은 재물을 상징한다. 한 숨이 묻어나는 시다.

(나) 고시조, 이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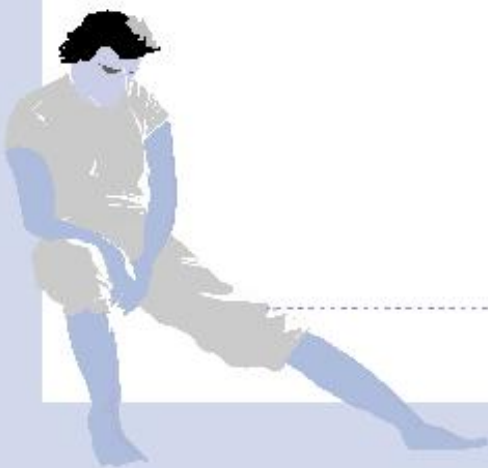
당대의 사회적 현실을 직설적으로 공박하지 않고, ‘넷가의 해오라기’와 ‘물 속의 고기’ 등으로 바꾸어서 풍자적으로 꼬집고 있다. ‘해오랍’은 물고기를 탐내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기’는 ‘해오라비’에 대한 희생물로서 약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물’은 ‘한 나라, 공동체’를 뜻한다. 즉, 약육강식의 권력 구조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회의 풍습을 꼬집으며 훈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 고시조, 신희



관습적 상징을 이용하여 시적 의미를 일반화하여 이해해 보자. ‘해’가 임금을 의미한다면 ‘구름’은 임금의 총명이나 광명을 가리는 존재가 되므로 ‘간신’이라는 의미를 획득한다. 임의로 다닌다란 말은 뜻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되니 간신이 제멋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광명’은 임금님의 은혜로운 덕과 총명한 기운을 비유한 것이고, 이 빛을 일부러 따라다니며 백성과 신하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는 간신의 횡포를 개탄하고 있다. 물론 배경 지식을 보아 간신을 신돈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 사실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시
해오라기
물고기



작품명과 작가

㉠ 못 잊어... 김소월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입에 대한 그리움

표현상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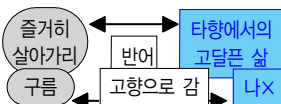
1. 민요조의 3음보로 친근한 느낌을 준다.
2.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3. 동일한 어구를 반복하여 강한 율격미를 형성한다.

해제 이 시는 전체적으로 3음보의 율격을 유지하면서 마치 입을 잊을 수 있는 듯 반어적으로 표현하다가 끝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못 잊는다는 고백적 사상 전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명과 작가

㉡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실패의 고통

표현상의 특징

1. 반어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2. 대상에 대한 거리감을 과장하여 심적 거리를 표현하고 있다.
3. 시적 화자와 대조적인 사물을 활용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출하고 있다.

해제 이 시는 지척에 있는 고향에 못 가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과장법을 활용하여 잘 표현하고 있으며 타향살이의 고통을 반어를 이용해 형상화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못 잊어

-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잊힐 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잊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

나

오늘도 고향은

- 김기림

〈I〉 오늘도 고향은 천리요 또 오백리
뜻하지 않은 위도(緯度)가 은하로구나

〈II〉 사랑스런 살붙이들
쟁쟁한 목소리 아물거리는 얼굴

〈III〉 도시 허위잡을 수 없이
구름만 북으로 밀려가는구나

〈IV〉 여러 십년 하루같이 모든 것을 고대던 것
눈앞에 어른거리면서도 종내 나서지 않아
동무와 안타까운 소식 이야기하며 밤을 새우며

〈V〉 목이 말라 가슴이 타 냉수를 켜며
이 달도 손때 댄 자전(字典)을 팔아 즐거히 살아가리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1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방법이 ㉠과 유사한 연을 (나)에서 찾으면?

- ① I ② II ③ III ④ IV ⑤ V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농무

- 신경림

징이 올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조무래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꺼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작품명과 작가

농무, 신경림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술 : 원통하다

비료 값도
안 나오는 농사

반어X
역설O

춤 : 신명이 난다

주제 |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

표현상의 특징

1. 사회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실 참여적인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2. 역설적 표현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3. 서사적 구성으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해제 이 시는 서사적 행위를 하는 화자가 사회적 현실을 체험하면서 농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슬픔과 절망감을 역설적 표현에 담아 형상화하고 있다.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2 위 시의 ㉠과 표현 기법이 같은 것은?

- ① 겨자씨 같이 조그맣게 살면 돼
복숭아 가지나 아가위 가지에 얹은
배부른 흰 새 모양으로
잠깐 앉았다 떨어지면 돼.
- ② 금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헤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 김수영, 장시 일

- 김남조, 생명

③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 백석, 여승

④ 아홉이나 남아 되던 오랩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夜三更)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옮겨가며 슬피 읊는다.

- 김소월, 접동새

⑤ 지상의 시는

지혜의 허위를 깨뜨릴 뿐 아니라,

지혜의 비극을 구한다.

분명히 태초의 행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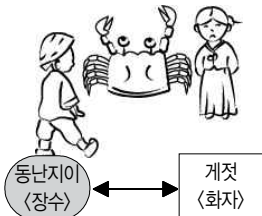
- 임화, 지상의 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품명과 작가

고시조, 작가 미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난해한 말의 사용에 대한 풍자

표현상의 특징

1.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극적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2.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꼬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해제 이 시조는 대화체로 되어 있으며 계를 해학적으로 묘사하면서 한자어를 쓰는 데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

고시조

- 작가 미상

딴들에 동난지이 사오. 저 장스야, 네 황후 그 무서시라 웨는다, 사자.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스스느 동난지이 사오.

장스야, 하 거복이 웨지 말고 계젓이라 흐렘은.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3 위 시에 드러난 화자의 의도 표출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꼬아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있다.
- ③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본래 의도와 상반되게 말하고 있다.
- ④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모순된 논리 속에 냉철한 진리를 담고 있다.
- 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망과 좌절을 직서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눈

-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표현기법 Theme Ques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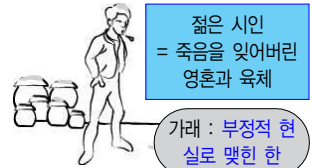
04 위 시의 첫째 연에서 사용된 표현 기교가 구사된 것은?

- ① 일체의 수속(手續)이 싫어
 그럴 때마다 가슴을 뚫고 드는
 우울을 견디다 못해
 주점에 기어들어 나를 마신다. - 조병화, 주점
- ②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중(虛空中)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김소월, 초혼
- ③ 밤은, / 푸른 안개에 싸인 호수
 나는, / 잠의 쪽배를 타고 꿈을 낚는 어부다. - 김동명, 밤
- ④ 남으로 창을 내겠소 / 발이 한참같이
 팽이로 파고 / 호미론 김을 매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⑤ 고개 숙여 성 옆을 더듬어 가면
 시장(市井)의 노랫소리도 오히려 태고 같고
 문득 치켜든 머리 위에선
 낮달도 파르르 떨며 흐른다. - 서정주, 광화문

작품명과 작가

눈, 김수영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눈
가래가 잘 드러나게 하는 존재

주제 | 정의롭고 순수한 삶의
소망과 의지

표현상의 특징

1. 점층적 반복으로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2. 상징적 기법을 이용하여 사회상을 풍자하고 있다.
3. 단호하고 강인한 어조를 구사하여 강인한 의지를 드러낸다.

해제 이 시는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함을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순수한 삶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가래를 눈 위에 뱉어 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눈 즉 순수함에 의존해야만 정의롭지 못한 삶이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렇게 해야만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시의 주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명과 작가

벽모(碧毛)의 묘(猫), 황석우

시의 구조와 주제 한 눈에 보기



주제 | 인간 영혼 구제의 불가능성

표현상의 특징

1.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화체로 구성함으로써 극적 긴장감을 자아낸다.
2.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함으로써 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있다.

해제 이 시는 고양이의 의미를 확보해야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악마적 심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이 갖는 착한 마음이 악마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오뇌, 운명의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세기말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벽모(碧毛)의 묘(猫)

- 황석우

어느 날 내 영혼의
 낮잠터 되는
 사막의 위 숲 그늘로서
 파란 털의
 고양이가 내 고적한
 마음을 바라다 보면서
 (이애, 너의
 온갖 오뇌, 운명을
 나의 짧은 샘 같은
 애(愛)에 살짝 삶아 주마.
 만일에 네 마음이
 우리들의 세계의
 태양이 되기만 하면,
 기독교(基督)이 되기만 하면.)

표현기법 Theme Question

05 위 시의 밑줄 친 부분은 상상력을 통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변용이 이루어진 것은?

- ① 아, 강낭콩꽃보다도 더 푸른 그 /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 그 마음 흘러라. - 변영로, 논개
- ② 옛날, 우리 나라 /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 김소월, 접동새
- ③ 가자 가자 /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④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이육사, 꽃
- ⑤ 우리들은 모두 /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 김춘수, 꽃



제1부 새로운 원리와 사고 방법 [유형모의 1-7]

01 ⑤ 02 ⑤ 03 ② 04 ② 05 ①

01 ⑤

● 문항 분석 반어적 표현을 알아내고 이와 동일한 기법을 사용한 시를 찾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에서 마치 있을 수 있는 듯이 표현하다가 맨 끝연에서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그리워 살뜰히 못 있는데 어쩌면 생각이 떠나지요?'라는 반문으로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어 ㉠은 표현 의도와 상반된 반어적 표현이다. (나)의 Ⅴ도 손때 뻘 자전(字典) 즉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팔아 즐거이 살아간다는 말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반어적 표현이다.

● 오답 비루기 I에서는 '위도가 은하'라고 하였으므로 은유법이 사용되었고, II에서는 의성법, III에서는 영탄법이 사용되었으며, IV에서는 '여러 십년을 하루같이'라고 하였으므로 과장법이 사용되었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구절의 표현 기법인 역설을 파악하고 이와 같은 표현법을 구사한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비로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대한 시름에 울음이 나올 판인데도 농무에 취하니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고 있어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거나 실제로 그런 한스러운 신명이 있을 수 있어 역설적 표현이다. ⑤에서는 시가 지혜의 허위를 깨뜨려 폭로할 뿐만 아니라 지혜의 비극을 구한다고 하였는데, 즉 지혜에 대해 나쁜 존재이면서 동시에 좋은 존재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혜만을 숭상하는, 낭만이 없는 사회에서는 참이 될 수 있는 표현이어서 역설적 표현이 된다.

● 오답 비루기 ①에서는 반어가 사용되었고, ②에서는 대구와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직유가 사용되었고, ④에서는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03 ②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풍자 기법의 특징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장수가 '외골내육(外骨內肉) 양목(兩目)이 상천(上天), 전행(前行) 후행(後行), 소(小)아리 팔족(八足) 대(大)아리 이족(二足), 청장(淸醬) 아스스스 동난지 사오.'

라고 하며 자신의 물건을 한자어로 어렵게 소개하자 시적 화자는 '하 거북이 웬지 말고 게갯이라 흐렘'라며 쉬운 우리말로 하라고 가볍게 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는 풍자시이며 이러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 오답 비루기 ①은 일반적으로 언어 유희에 해당하며, ③은 반어에 해당한다. ④는 역설에 해당하며, ⑤의 직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정서 표출 방식의 한 갈래에 해당한다.

04 ②

● 문항 분석 제시된 시에 사용된 수사법을 알아내어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씌어진 시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눈은 살아 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 제 2행, 제 3행으로 갈수록 다른 구절이 늘어나면서 의미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반복법과 점층법이 사용되었다. ②도 '이름이여'란 구절이 반복되고 있고 행을 더하여 갈수록 그 감정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답이 된다.

● 오답 비루기 ①에서는 '나를 마신다'에서 '나'가 술이므로 의인법 혹은 은유법이 사용되었다. ③에서는 은유법이 사용되었으며, ④에서는 호미와 팽이를 농기구의 대유법으로 볼 수 있다. ⑤에서는 직유법과 의태법이 사용되었다.

05 ①

● 문항 분석 시적 대상을 비유하는 구체적 방법이 같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법은 있다로 정답 찾기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뇌와 운명, 애(愛)는 모두 추상적인 것인데 애가 오뇌와 운명을 삶아 낼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세 가지 추상적 의미가 모두 구체적 사물로 비유되어 있다. ①에서도 마음이 색채를 띠고 흘러가는 것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추상적 의미가 구체적 사물로 비유되었다.

● 오답 비루기 ②는 아무런 수사법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③에서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에서는 영탄법이 사용되었으며, ⑤에서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서해역력 표이기

1. (가) 못 잊어, 김소월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로 시상을 응축시키고 이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입을 잊을 수 있는 듯 반어적으로 표현하다가 끝내는 생각이 떠나지 않아 못 잊는다는 고백에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숙명적인 입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난다. ‘못 잊어도 더러는 잊히오리다’란 거짓 말을 늘어놓은 것은 반어적 표현으로 지독한 그리움의 표현에 해당한다. 3음보의 율격은 민요조의 율격으로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나) 오늘도 고향은, 김기림



고향은 천리요 또 오백리라 하였으니 함은 천 오백리다. 그것을 위도로 받아 다시 은하로 과장해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고향에 대한 심적 거리가 너무 멀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심적 거리에 반해 그리운 대상들은 더 없이 많다. 갈 수 없는 곳으로 구름은 가고 있으니 시적 화자는 더욱 안타까운 노릇이다. 그 고통을 십년을 하루같이 고대던 것이라는 말로 표출하고 끝내는 손 때 뱀 자전을 팔아 즐거히 살아갈 것이라는 반어로 절망감을 털어 놓는다.

2. 농무, 신경림



징이 울리고 시작이 아니라 끝을 의미하는 막이 내린다. 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 않을 때 때론 비애에 젖는 것이 일반적이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며 소주를 마시는 이유를 제시한다.

장거리로 나서도 조무래기들만 따라 붙어 누구는 임꺽정처럼 울부짖고 누구는 서림이처럼 해해댄다.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는 비애의 근원을 비로도 안 나오는 농사로 밝히고 있다. 애쓴 보람이 없을 때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도살장, 죽음의 공간 앞에 농무를 출 때 슬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신명이 나는 것은 무엇일까? 춤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이다. 비애의 상황에서도 춤은 정말 신명이 나게 만든다. 살 풀이를 하는 무당의 춤에서 우리가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반어가 아닌 역설이 되면서 우릴 더 슬프게 한다. 한 편의 동영상에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바로 서사적 구성 때문이다.

3. 고시조, 작가 미상



동난지이를 사라고 외친다. 궁금한 어느 주부는 장사꾼에게 묻는다. 네 물건이 무엇이냐? 대답이 요란스럽다. 밖에는 뼈, 안에는 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반된 논리가 튀어 나온다. 두 눈이 하늘을 보고 있으며, 앞으로 뒤로도 잘 가는, 작은 다리가 여덟 개, 큰 다리가 두 개이면서 맑은 장이 아사삭 깨물 때 터지는 동난지이를 사란다. 거북하게 외치지 말고 게 것이라 하라는 말이 웃음 속에서도 섬뜩한 느낌을 자아낸다. 풍자의 묘미다.



4. 눈, 김수영



‘눈은 살아 있다’와 ‘기침을 하자’라는 구절을 점층적으로 반복하여 운율과 의미의 강조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야 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눈은 일반적으로 순수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도 순수한 삶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가래를 눈 위에 뱉어 내기 위한 것이다. 더러운 가래는 세상사와 관련된 것이다. 젊은 시인이 지닌 세상에 대한 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눈 즉 순수함에 의존해야만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삶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시는 현실에 대한 풍자를 담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벽모(碧毛)의 묘(猫), 황석우



이 시는 고양이의 의미를 확보해야 전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악마적 심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시는 인간이 갖는 착한 마음이 악마들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인간의 오뇌, 운명의 구제도 불가능하다는 세기말적 사고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